



[산업] 구본준 LG부회장 “ZKW 인수로 車전장사업 선도” 04



Economy

코스피	2458.54 (-17.57)	코스닥	862.94 (+4.24)
금리 (국채 3년)	2.31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1073.80 (+5.80) (15일)



# 물가 미스터리

## 정부는 “1%대 안정” 실제론 ‘어안이 병병’

#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박모 씨(37)는 최근 감자를 사려다 깜짝 놀랐다. 감자 한 개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어 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무우, 호박 가격 역시 지난달에 비해 크게 올랐다. 박 씨는 “도시락 반찬을 만들려고 했는데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TV에선 물가 상승률이 1%대라는데 장보러 나오면 지갑을 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 8개월째 1%대 체감물가는 갈수록 높아져 수입물가 7개월만에 최고치 국제유가 100달러 임박 경고 콜라·설탕 등 가공식품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지난 4월 수입물가는 7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동안 묶여 있었던 공공요금까지 6월 지방선거 후 오를 가능성이 커 이례적인 저물가 행진에도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는 가중되는 ‘물가 미스터리’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아 제한적 ‘스몰 스테그

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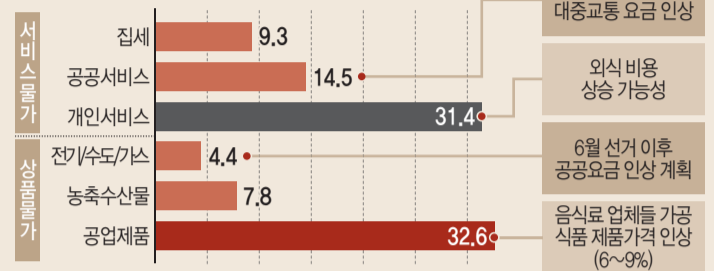
◆ 수입물가 7개월 만에 사상최고

14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배럴당 0.4%(0.26달러) 오른 70.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1.62%(1.25달러) 상승한 78.37달러에 거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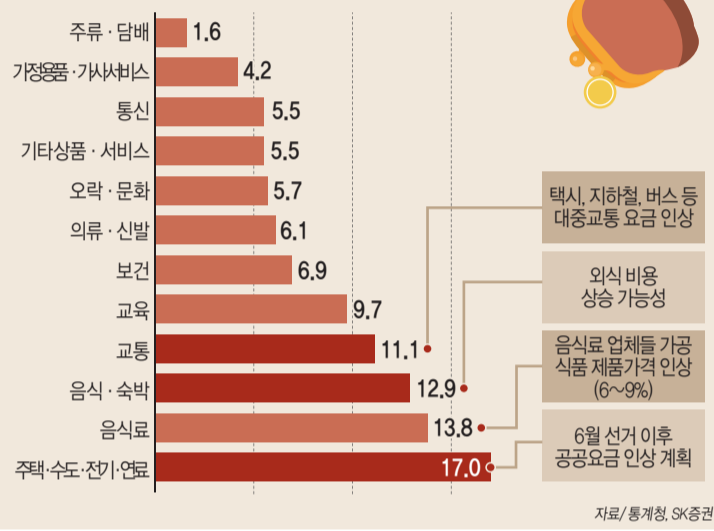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임박했다는 경고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이란의 원유 공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높은 원자재 수입 비중을 감안하면 관련 제품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주요 곡물 가격도 오름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

### 품목별 물가 가중치



### 지출목적별 물가 가중치



는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73.1포인트보다 오른 173.5포인트를 기록했다. 덕분에 가공식품 가격 인상 행

결과 콜라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오르는 등 일부 품목의 상승 폭이 컸다. 콜라에 이어 즉석밥(8.1%), 설탕(6.8%), 어묵(5.8%)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 두부(-33.2%), 냉동만두(-12.7%) 등은 하락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수입물가가 7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는 85.03(2010=100·원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2%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 만에 최고치인 1.6%(전년 동기 대비)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1.8%) 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이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고, 3%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로 오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제유가

가 8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소비가 0.81% 줄어 들고 기업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투자는 7.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올라 석유제품의 제조 원가가 7.5% 상승 압력을 받고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 비중이 높은 화학·운송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수출은 1.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원가 상승에 따른 감소 효과와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출단가 상승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당분간 원자재 가격은 더 오를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동 위기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혼란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원자재 투자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원자재에 투자할 경우 향후 1년 내로 10%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면에 계속>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최저임금 후폭풍? 식당 정규직 줄고 임시직만 늘었다

##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조사

올해 1분기 음식점 및 주점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상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고용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말한다. 반면 같은 업종의 올해 1분기 임시일용 노동자 수는 4분기 만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 및 주점에 종사하는 상용 노동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598명(0.2%) 줄었다. 이런 감소는 분기(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010년 4분기에 전년 대비 363명이 감소한 이후 29분기(7년 3개월)만이다. 최근 월별로 보면 작년 12월 3935명에 이어 올해 1월 1만271명이 각각 감소했다. 2월에 6849명 늘어나며 반전했으나 3월에는 다시 1371명 줄었다.

1분기 감소율은 0.2%로 크지 않지만, 음식점·주점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용 노동자를 꾸준히 늘려온 점에 비춰보면 감소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2년 전인 2016년 1분기에는 6만명 넘게 늘고 작년 1~2분기에 2만명 이상씩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 업종의 임시일용 노동자는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394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작년 1분기에 이어 4분기 만이다. 임시일용 노동자는 고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상용직보다는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도 다른 서비스업인 숙박업 역시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상용 노동자가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작년 4분기 7420명으로 저점을 찍었고 올 1분기에는 1617명이다.

서비스 분야에서 상용 노동자 감소가 눈에 띄는 또다른 업종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올해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1만1595명 줄었다. 이는 2013년 2분기에 1722명이 감소한 이후 19분기(4년 9개월)만의 감소다.

반면,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임시일용 노동자는 2016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분기에 3078명 늘었다.

<3면에 계속>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평창을 빛낸 대한민국의 별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오찬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철뉴스

# 롯데닷컴 삼킨 롯데쇼핑… 온라인 사업에 3조 투자

## 강희태 롯데쇼핑대표 감동회 新동력 e커머스 시장에 올인

롯데쇼핑이 롯데닷컴을 합병하며 e커머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롯데 e커머스 사업본부 전략 및 비전 소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는 롯데닷컴 합병을 시작으로 신성장 동력인 온라인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온라인 매출 20조를 달성, 업계 1위를 자리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우선 롯데는 온라인 사업에서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 /손진영 기자 son@

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프라인 조직에서 온라인 조직을 분리해 통합한 ‘e커머스사업본부’를 신설한다. 그룹의 온라인 핵심 역할을 하나로 모아 계열사별 시스템 인력과 R&D 조직을 e커머스

사업본부로 통합했다.

롯데는 e커머스사업본부를 통해 백화점과 마트, 홈쇼핑, 면세점 등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8개의 온라인몰을 통합·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온라인몰은 2020년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옴니채널 완성을 위해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내놨다. 고객 구매 이력과 각 계열사별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통합해 온·오프라인을 융합,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롯데는 국내 최대 멤버스 회원(3800만명)과 오프라인 채널(1100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롯데의 온라인 매출은 7조원이다. 롯데는 현재 온라인 매출이 유통 전체 매출(40조원) 가운데 18%에 불과하지만 2022년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을 30%(유통 전체 매출 목표 60조원 중 20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롯데는 AI플랫폼 기반의 ‘보이스커머스’에도 집중 투자한다. 보이스커머스는 기존 쇼핑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화 방식을 통한 상품 추천, 구입까지 가능한 쇼핑 형태로 향후 시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車 전장에 홀린

삼성  
현대차  
LG

# ‘디지털 콕핏’에 꽃이다

삼성전자, 하만과 협업 통해  
올해 초 디지털 콕핏 공개  
현대모비스 ‘코나 EV’에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  
LG전자, LG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중심 콕핏 개발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의 협업의 통해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다. CES에서 공개됐지만 상용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삼성전자

#이소윤씨가 퇴근 후 자동차에 올라타 ‘하이, 마이 카’라고 말하자 음성인식 시스템이 가동되며 시동이 걸린다. 시동과 함께 운전 자석에서는 주행에 필요한 속도계와 운행정보, 내비게이션 등이 표시되며 본격 운행이 시작된다. 저녁과 내일 일정 확인을 위해 음성으로 텔레매틱스 연결된 다이어링을 불러내 체크하고, 날씨 정보를 확인한다. 오늘 저녁 친구와 집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음성으로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로 하여금 집을 청소하게 한다. 또 차안 디스플레이로 냉장고 식재료를 확인하고 부족한 식재료는 마트에 주문하고 집 배달을 부탁한다.

미래자동차 안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이 같은 상황이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전자가 선보일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콕핏은 비행기 조종석을 의미한다. 자동차에서도 운전석 및 조수석 등의 앞 좌

석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기존 운전석의 아날로그 계기판과 센터패시아(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중앙 전면부)의 오디오와 매립형 내비게이션 등이 주된 변화의 핵심이다.

특히 미래자동차의 전장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콕핏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되는 사물들을 자동차에 넘어 집안의 기기들과 모바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 환경 정보를 보다 간결하게 제공해 안전성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수한 하만과의 협업의 통해 올해 초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다. 콕핏에는 삼성전자의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다. 운전석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조수석에는 승객용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디스플레이로 적용됐다.

운전석 디스플레이는 속도계, 주유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비게이션, 음악, 전화 등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준다. 승객용 디스플레이에서는 영화감상이나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

운전석과 조수석 중앙에는 빅스비·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OLED ‘노브’와 공조·조명 등을 조절하는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있다. 또 백미러와 룸미러를 대체하는 MRVS 디스플레이도 갖췄다. 각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결된다.

CES에서 공개됐지만 상용화는 언제든

지 가능하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 박중환 부사장은 “디지털 콕핏은 차세대 카라이프를 보여준다”며 “하만이 이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 업체가 채택만 하면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달부터 양산하는 코나 일렉트릭(EV)에 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클러스터를 적용한다.

클러스터는 속도·주행거리·경고 알람 등 주행정보를 표시하는 계기판으로 운전자와 자동차를 연결하는 콕핏의 핵심 부품이다.

이번에 양산을 시작한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플랫폼 인오토사(AUTOSAR)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고해상도(1280×720)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시인성을 높이고, 중앙처리장치(CPU) 소프트웨어를 독자개발하는 등 핵심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열린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도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콕핏이 적용된 다양한 미래차 디스플레이를 선보인 바 있다. 운전석을 중심으로 각각 클러스터, 스티어링휠(운전대), 룸미러, 콘솔 박스에 위치한 4개의 디스플레이다.

현대모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소장인 양승욱 부사장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와 IT업체들이 각자 차별화된 전략으로 자율주행차용 차세대 콕핏 개발 경

쟁을 펼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인포테인먼트 핵심부품 개발해 차세대 콕핏 개발 경쟁에서 앞서 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7월 VC사업부를 신설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텔레매틱스·디스플레이·오디오·내비게이션) 제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설계 용역, 생산 설비·부품 공급 등을 수행하며 외연 확대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하이엔드(최고급 성능)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공을 들이는 중이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 중인 콕핏이다.

LG전자가 콕핏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베이징 모터쇼, 디트로이트 모터쇼 등 주요 국제 모터쇼에서 비공개 부스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차세대 기술로 밀고 있는 자동차용 POLED(플라스틱 OLED)의 경우 대시보드 형태로 매끄러운 곡률로 몰입감과 집중도를 높인다. 음악, 운전 정보뿐만 아니라 주행 상태를 카메라로 보여준다.

LG전자 관계자는 “전장 사업은 B2B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국제 모터쇼 등을 통해 선보인 콕핏에 대한 완성차 업체의 반응은 좋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해수부,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화

세계 동향 조사·정책방향 설정  
中 양산항 4단계 터미널 방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과제인 ‘항만 산업’ 첨단화 추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스마트항만 관련 세계 동향을 조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상하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개장한 상하이 양산항 4단계 터미널은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작업부터 트럭에 컨테이너를 싣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터미널로 칭다오항, 서먼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장된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 주요 항만들은 하역작업의 자동화 등을 통한 스마트항만의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동화 터미널 도입 요구와 함께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위해 부산항 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추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으므로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국가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혁신성장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해상물류와 스마트양식, 어촌뉴딜300이 혁신성장과제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해상물류는 자율운항 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모형 앞에서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질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과 초고속 해상교통망(e-Navigation), 스마트항만을 연계해 해상물류를 첨단화하기 위한 과제로, 그 중에서도 육·해상 물류의 중심인 항만의 스마트화는 핵심과제로 꼽힌다.

해수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최신의 자동화시설을 둘러보고, 국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화항만의 생산성과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상하이 양산항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존 일자리에 대한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 로드맵을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공수 뒤바뀐 삼성바이오-금감원

## 삼바 “회계규정 위반 근거 알려달라”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 규정 위반’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일 홈페이지에 김태한 사장 명의의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사건통지서에는 분식회계 판단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 및 사실 언급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지 않아 회사가 이에 반박하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 오는 17일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캡처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내린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논란이 불거진 이래 모든 사안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해왔다.

김태한 사장은 “지난 11일 금감원에 ‘조치사건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감원이 근거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감리위에서 소명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인플레이션 중간단계… 서비스물가 지속 상승 우려

>> 1면 ‘물가 미스터리’서 계속

◆“점증하는 인플레이션 기대”…금리인상 가능성은?

채감물가는 고공행진이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2%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하향조정(1.7→1.6%) 하면서도 “내년에는 물가 목표치(2%)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금리 결정을 할 땐 현재보다는 1년 후 물가를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금리 인상의 고려 요인으로 물가보다 소비·투자·고용 등 실물지표를 더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이 금리 인상의 제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실물지표 개선세만 확인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8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1분기 국내총생산은 395조932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분기보다 1.1%,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앞으로가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9.8을 기록해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점(100)을 밑돌았다.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지난해 7월 101.2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3월에 100.4까지 하락했다.

SK증권 안영진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에서 우리나라는 중간쯤 된다”면서 “그 순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각종 제품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물가가 상승하는 초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대구銀의 희한한 행장뽑기... 구속된 前 회장의 측근 2명이 최종후보에

# 사실상 '박인규 2기' 체제... 누가 '개혁' 말할수 있나



“반성·쇄신 물건너가”  
지역사회·직원들 싸늘

두 후보자 각자의혹 연루설  
사외이사·감독원 책임론도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 은행장직무대행



대구광역시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행장 선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인규 전 행장이 사퇴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 주 중으로는 신입 행장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자칫 '박인규 2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현재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쇄신은 커녕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와 경영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3차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압축된 차기 은행장 후보 2명은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직무대행, 박명흠 대구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이다.

임추위는 오는 18일 심층면접을 통해 2명의 후보 중 1명을 최종 차기 은행장 후

보로 내정할 계획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DGB대구은행 신입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 ◆ 네버엔딩 'CEO 리스크'

문제는 두 명의 후보가 모두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의 측근 인사라는 데 있다. CEO가 비리혐의에 구속까지 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반성은 물론 쇄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 내부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모두 싸늘하다.

김 후보자는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다. 박 전 행장과 고교, 대학 모두 동문이다. 대구은행 경북 본부장까지 지내고, 2015년부터는 지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에는 지주 부사장으로 박 전 회장을 수행했다.

박 후보자는 오산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역시 박 전 행장의 대학 동문이다. 대구은행에서 부울경 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는 부행장으로 마케팅본부와 서울본부를 이끌었다.

현재 구속된 박 전 행장의 혐의는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만 가능한 혐의임을 감안하면 주요 요직에 있었던 두 후보자가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든 상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신입 행장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쇄신에 성공한 BNK금융지주와는 달리 대구은행은 CEO 리스크가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 후보자는 경산시 금고 유치와 관련한 비위 의혹에 대해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후보자 역시 계열사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 사외이사 책임론 부상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추위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했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당초 5명의 사외이

사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명을 제외한 4명으로 구성됐다. 김진탁 계명대학교 명예교수와 선익덕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서균석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김용신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회장이다.

이 중 3명이 영남대 출신으로 박 전 행장과 동문이며, 나머지 한 명 역시 대구상고 출신으로 박 전 행장과 고교 동문이다. 대구은행 노조가 행장 선임 절차 초기부터 임추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임추위원들 모두 박 전 회장이 취임한 이후 수년 동안 사외이사직을 맡아오고, 대부분의 이사회 안건에 찬성하며 박 전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가능케한 인물들”이라며 “임추위에서도 무기명 투표 등의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역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은행장 선임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CEO 리스크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상장사 43%, 내부감사 부서 아예 없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제출

코스피 26%·코스닥 55% 無  
“감사위원회 실무이행에 한계”

국내 상장사의 절반 가량은 제대로 된 내부감사부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 삼정KPMG가 15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을 보면 국내 1941개 상장사의 42.5%(824개)가 내부감사 부서가 아예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각각 내부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다. 주로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감사위원이 모든 세부 업무를 전담하기 어려운 만큼 내부감사 부서가 없으면 감사위원회의 실무 이행에 한계가 있게 된다고 삼정KPMG는 설명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행위를 적절히 감독하도록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그쳤다. 반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에 달해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 200대 기업 152곳 중 CoE 방식(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자율 공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14개사(9.2%)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되 여러 사정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적용된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상용노동자, 임시직 대체’ 결과 분석도

» 1면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서 계속

사업지원서비스업에는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고용알선업 등이 속하며 아파트에 경비·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상용직 감소가 생산 악화, 외국인 관광시장 위축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일부 업종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최근 생산지수가 좋지 않았고 외국인 여행객이 감소한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1분기에 나타난 변화만으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 상황 악화와 최



지난 1일 민중노총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종로4가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상용 노동자를 임시직으로 대체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상용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임시직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현대·기아차, 협력사와 기술공유로 미래차 기술 선도

상반기 R&D 협력사 테크데이 개최

현대·기아차가 협력사들과 함께 상생을 통한 미래 자동차 기술 선도에 앞장선다.

현대·기아차는 15일 경기도 화성 몰링 힐스 호텔에서 현대·기아차 양웅철 부회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들과, 현대·기아차통합협력회 이영섭 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등 협력사 79개사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상반기 R&D 협력사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R&D 협력사 테크데이는 현대·기아차가 최신 정보 공유 및 각종 지원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현대·기아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량 IT 및 전동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2018 상반기 R&D 테크데이

는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미래기술을 행사 참석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현대·기아차 각종 시험 평가 활동을 참관하는 기회와 함께 우수 협력사의 성과를 포상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진행된 ‘미래기술 체험 및 시험동 참관’ 활동은 ▲자율주행 관련 미래 기술 체험 ▲실차 충돌 시험 및 더미 평가 ▲승차감 평가 ▲전자파 시험 및 안테나 성능 평가 ▲엔진 및 변속기 성능 평가 등 각종 시험동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사와 동반자로서 수평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제54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5월 29일~6월 21일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6월 2일~6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6월 10일(일), 6월 17일(일), 6월 19일(화)

김태영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 LG ‘G7 씽큐’로 카이저 제대로 즐기자 “ZKW 인수로 후전장사업 선도”

〈넥슨 모바일게임〉

## LG전자-넥슨

### 전략적 협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LG전자가 국내 최대 게임 회사 넥슨과 손잡고 ‘LG G7 씽큐(ThinQ)’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와 넥슨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 사옥에서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양사는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과 높은 제품 완성도를 갖춘 LG G7 씽큐와 웅장한 스케일, 화려한 액션의 M 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 ‘카이저’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슨은 카이저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LG G7 씽큐를 선정했다. LG G7 씽큐는 LG전자는 스마트폰 중 가장 밝은 약 1000니트의 휘도를 구현하면서 색상까지 풍성하게 구현하기 때문에 실내뿐 아니라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중 최초로 탑재한 ‘DT S:X’는 고급 이어폰 없이도 최대 7.1채널의 영화관 같은 고품격 입체 음향을 제공한다.



LG전자 한국모바일그룹장 이상규 부사장과 넥슨 이정현 대표(왼쪽)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에 참여해 악수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와 넥슨은 공동 마케팅으로 게임 마니아들에게 차별화된 모바일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 G7 씽큐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15만원 상당의 카이저 아이템을 받고, 별도로 ‘넥슨카이저팩’을 선택하는 고객은 25만원 상당의 특별 아이템인 VIP 쿠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40만 원의 게임 아이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LG전자는 LG G7 씽큐에 카이저를 기본 탑재하고, LG G7 씽큐 체험존에 카이저 체험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쉽게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

〈자동차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

## 구본준 LG 부회장

### 미래 핵심역량 확보 위해 선제적 투자 포트폴리오 강화·차세대 제품 개발

구본준 LG 부회장은 15일 열린 임직원세미나에서 “이번에 인수를 결정한 ZKW로 우리가 주력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의 시장 선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역량을 모으자 주문했다.

LG그룹은 이날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최고경영진 및 임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월 임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구 부회장은 “지난달은 LG사이언스파크가 오픈한 뜻 깊은 달이었다”며 “LG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경영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달 인수한 ZKW는 자동차용 헤드램프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우리가 주력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의 시장 선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구본준 LG 부회장. /LG그룹

말했다.

그러면서 구 부회장은 “앞으로도 LG의 미래 사업을 위한 핵심 역량은 내외부의 힘을 모아 키우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와 LG는 지난달 글로벌 프리미엄 헤드램프 전문 제조사인 Z

KW를 약 1조44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G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이다.

LG는 ZKW 인수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는 물론, 차세대 융복합 제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자동차 부품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회장은 “비록 경제 및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일부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를 체질 개선과 사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변화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이끌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원세미나에서는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인 장승화 서울대 법학부 교수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최근의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새얼굴+안전성 강화 ‘더 뉴 K5 하이브리드’

### 기아차, 연비 효율성·편의성 개선

기아자동차가 스타일과 안전성, 편의성을 강화한 ‘더 뉴 K5 하이브리드’(사진)를 15일 출시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더 뉴 K5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가 18.0km/L(16인치 타이어 기준)로 기존 모델(17.5km/L) 대비 높은 연비 효율성을 갖췄다.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용량이 기존 1.62kWh에서 1.76kWh로 8.6% 늘어나 연료 소비 없이 전기로만 운행 가능한 전기차(EV) 모드의 효율도 개선됐다.

디자인은 올해 초 출시된 ‘더 뉴 K5’의 요소를 적용했다. 전면부는 가로형 레이아웃의 LED 안개등과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넣었고 후면부는 LED 리어 콤포지트를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한 하이브리드 전용 휠과 친환경차 전용 엠블럼(ECO-hybrid), 17인치 에어로 다이내믹 휠을 더했다.

안전사양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피로도를 줄여 주는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보조(HDA)와 운전자에게 맞는 최적의 주행환경을 제공하는 주행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주행 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DRM)를 갖췄다. 특히 주력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LED 헤드램프, LED 안개등, LED 리어 콤포지트,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EPB), 후측방 충돌경고 등을 기본 적용했다.

이 밖에 카카오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 I’(아이)를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 기반 내비게이션과 미국 최상급 오디오 브랜드 크렐(KRELL)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했다.

더 뉴 K5 하이브리드의 판매가격(세제 혜택 후)은 ▲프레스티지 2890만원 ▲노블레스 3095만원 ▲노블레스 스페셜 335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상선, PSA와 부산항 4부두 공동운영

### 각각 지분 50% 보유… 합의서 체결

현대상선이 15일 싱가포르 항만운행사 PSA와 ‘부산항 4부두 공동운영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을 통해 양측은 ▲부산항 신항 4부두(PSA-현대부산신항만) 지분을 각각 50% 보유 ▲최고경영자(CEO)는 현대상선이, 최고재무관리자(CFO)는 PSA가 임명 ▲부산항만공사는 현대상선과 PSA의 터미널 운영을 지원 ▲현대상선과 PSA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정책에 적극 협조 등

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와스카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를 현대상선이 40%, PSA가 10%를 인수하면서 현대상선과 PSA는 각각 지분 50%를 확보 하게 됐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기존 HPNT 하역 효율 인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와 건조 예정인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기항을 위한 선석 확보가 가능해 졌다. 또한 HPNT 운영을 통해 향후 얼라이언스 선사의 부산 기항을 유도해 부산항 환적 물량 및 수익 증대를 통한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 갤럭시S9 시리즈, 국내 개통 100만대 돌파

### 국내 출시 후 약 60일 만에 갤럭시S9 시리즈 세번째 최단 기록

삼성전자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개통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3월 16일 국내 출시 후 약 60일 만에 받은 성적으로, 갤럭시S9의 판매 실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럭시S9 시리즈의 국내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 갤럭시S 시리즈 중 세번째 최단 기간 기록이다.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던 전작보다는 저조하지만, 시장은 초기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갤럭시S9+. /삼성전자

작년 4월 출시된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S8시리즈가 시판 37일 만에, 2011년 나온 갤럭시S2가 40일 만에 개통 100만대를 돌파한 바 있다.

갤럭시S9시리즈는프리미엄폰으로 는 처음으로 국내에 완전 자급제로 출

시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갤럭시 팬 파티’ 등 체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꾸준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의 100만대 판매 돌파를 기념해 16일부터 ‘S9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갤럭시S9 사용자가 지인에게 갤럭시S9를 추천해 구매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고, 추천인 대상 AKG헤드폰을 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도 추천으로 증정하는 방식이다.

또 삼성전자는 작년 갤럭시S8에서 선보인 버건디 레드 색상의 갤럭시S9시리즈를 중국에 이어 조만간 국내에서도 출시해 판매량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한화토탈,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건설… 첫 출하 성공

### 석유화학 고부가제품… 다용도 사용 독자 개발 기술로 연간 1.2만t 생산

한화토탈은 충남 대산공장에 석유화학 고부가제품 중 하나인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건설을 완료하고 상업생산 및 첫 제품 출하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화토탈이 이번

에 완공한 고순도 노말헵탄 생산공장은 총 300억원이 투자됐으며,

▶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위치한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 전경.

독자 개발한 공정 기술을 통해 고순도 노말헵탄 7500톤을 비롯해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고순도 노말헵탄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에서 순도 99% 이상으로 노말헵탄만을 추출하여 만드는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제약 성분 추출제, OLED 등 디스플레이 코팅 공정, SBR(합성고무의 일종), MMA(합성수지의 일종) 등 석유화학 제품 제조공정의 용제 및 용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이번 한화토탈의 고순도 노말헵탄 공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독자 개발한 생산공정 기술인 SM

B(Simulated Moving Bed) 공법을 적용해 상업생산 및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고순도 노말헵탄은 미국 웨브론필립스, 독일의 할터만, 일본의 TOA 오일, 한국의 SK종합화학 등 소수 기업만이 생산기술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술장벽이 높은 제품이었다. 한화토탈 연구소에서 약 5년간의 연구기간 끝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 SMB공법은 공정 내 흡착과 탈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성분이 혼합된 나프타 분해 부산물에서 효율적으로 노말헵탄만을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고순도 노말헵탄은 전 세계 약 9만톤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며 일본,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제약·전자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 2022년까지 매년 4~6%씩 안정적으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토탈은 이번 상업생산을 통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증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서윤 기자





더 깔끔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작고 더 싸게

# 역삼투압 vs 직수형... 200만대 정수기 '물의 전쟁'

〈코웨이-청호〉

〈SK매직-교원〉

## 코웨이 '마이한뺨 정수기'

물 닿는 부분 스스로 '순환살균' 청호나이스 '얼음 정수기 도도' 음용수·생활수 각각 사용 가능

## SK매직 '직수형 정수기 올인원'

모든 유로 스테인리스로 변경 교원웰스 '웰스 tt 정수기' 밀폐형 냉각 유로관 적용



① 전기분해 살균수로 물탱크 등을 스스로 살균하는 코웨이의 '마이한뺨 정수기'  
② 위생을 위해 유로를 모두 스테인리스로 바꾼 SK매직의 직수형 정수기 '올인원'  
③ 역삼투압식과 직수형의 기능을 결합한 청호나이스의 하이브리드 얼음정수기 '도도'

/각사

정수기 판매 규모가 연간 약 200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성숙된 시장을 놓고 생활가전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한쪽에선 '프리미엄'을 내세워 정수 성능에 충실한 고급형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선 초소형 등 디자인과 '가성비'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수기 시장은 대형 가전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로 판매점을 활용한 시판용, 코웨이·청호나이스·교원웰스·SK매직·쿠쿠홈시스 등 생활가전 전문기업들은 방문판매(방판) 형태로 시장을 양분해오고 있다.

현재 정수기 시장은 코웨이가 지난해 기준 약 37%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5일 생활가전업체에 따르면 한때 저수조를 갖춘 역삼투압식과 역시 저수조가 있는 중공사막식이 정수기 시장을 양분했다면 최근엔 전통적인 역삼투압식

(저수조)과 저수조가 없는 직수형 정수기(중공사막식)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필터를 거친 물을 담아놓는 저수조의 청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순간온수·순간냉각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공사막식 정수기의 경우 저수조 없이 출시,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서다. 게다가 저수조가 없다면 소형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해 공간 효율성이 좋다.

그러나 RO멤브레인 필터 등을 활용해 중금속이나 이온성 유해물질 등 40여종이 넘는 이물질을 여과하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경우엔 나오는 물의 양이 적어 이를 담아놓는 저수조가 필수적이다.

전통적인 역삼투압식 정수기를 고집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다.

청호나이스는 최근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역삼투압식 정수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는 "최근엔 정수의 성능보다 작고 예쁘게 만드는 등 디자인 측면과 싸게

만들어 렌탈하는 경제적 측면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정수기의 목적은 물 속의 이물질을(최대한) 걸러내 가장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본질에 충실한 제품을 꾸준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직수형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포용하기 위해 'RO멤브레인'과 '나노 직수'의 2가지 시스템을 갖춘 '하이브리드 얼음정수기 도도'를 이날 선보였다. 하나의 정수기에 역삼투압식과 중공사막식을 모두 갖춰 음용수와 생활수로 각각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삼투압식을 고집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저수조 등의 청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코웨이가 앞서 선보인 역삼투압식 '마이한뺨 정수기'는 전기분해 살균수로 물탱크와 물이 흐르는 유로, 파우셋 등 물이 닿고 머무르는 부분을 스스로 순환살균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도도'에 매일 매일 탱크의 내부를 자동으로 비우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워주는 스마트 오염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저수조가 없는 직수형 정수기를 주로 출시하고 있는 회사들은 물이 지나가는 유로의 청결에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SK매직은 직수형 정수기 '올인원'을 출시하면서 유로를 모두 스테인리스로 바꿨다. 또 흐르는 물을 UV LED로 살균하고, 물을 받는 취수구(코크)

역시 2시간마다 자동으로 살균할 수 있도록 했다. SK매직의 경우 직수형 비중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웰스는 앞서 선보인 '웰스 tt 정수기'에서 저수조뿐만 아니라 냉각탱크까지 없었다. 물이 흐르는 통로의 걸면을 냉매관이 직접 감싸는 '밀폐형 냉각유로관'을 채택했기에 가능한 기술이다.

이에 따라 급속 순간 냉각을 통해 냉수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당초 중공사막식 정수기에 집중했던 교원웰스는 현재 판매비중의 70~80% 가량을 직수형이 차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해치백 무덤 韓에 '가성비'로 승부수 던진 르노 '클리오'

## LS전선, 세계 최초로 HVDC 케이블 공인인증

'삼성' 지우고 르노 엠블럼 장착  
가격 1990만원부터 2650만원



르노 클리오.

르노삼성자동차가 해치백 무덤으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 해치백 '클리오'를 출시해 성공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클리오 역시 트위지에 이어 르노의 엠블럼을 그대로 사용하며 르노 브랜드의 정체성을 국내에 그대로 전달하는 모델이다. 국내엔 젠(ZEN)과 인텐스(INTENS)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며, 출시 가격은 ▲젠(ZEN) 1990만~2020만원 ▲인텐스(INTENS) 2320만원~23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책정될 예정이다.

클리오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400만대 이상 팔린 해치백의 교과서 같은 차다. 특히 유럽에선 10년 이상 해당 세그먼트 판매 1등을 이어오고 있다. 1990년 파리오 토살롱에서 처음 공개되고 판매를 시작했

을 때도 상당히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어서 나온 고성능 모델들도 진정한 '핫해치'의 면모를 과시하며 모터스포츠에서 활약했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클리오 16V와 RSi 등의 차는 고성능 해치백의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며 르노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경기용으로 만든 윌리엄스 에디션은 한정판으로 양산한 모델

은 고성능 해치백 애호가들의 호응을 얻었다. 2세대의 RS는 라구나의 V6 엔진을 얹은 미드십 차로 개발돼 르노 5 터보의 뒤를 이으며 당시 '핫해치의 끝판왕'이란 별명을 얻었다.

클리오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이전 모델이었던 르노 5를 꼽을 수 있다. 1972년부터

1996년까지 오랜 기간 소형 해치백 시장을 점령했다. 크기는 당시의 오리지널 미니처럼 작았다. 알파인, 터보 등 다양한 트림으로 제작돼 르노 클리오가 나오기 전까지 해치백 장르를 선도하며 성공적인 시장을 이끌었다.

현재는 라인업을 소비자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단촐하게 정리해 1.5 dCi(디젤 엔진)와 0.9와 1.2 TCe(가솔린 엔진) 라인업으로 판매 중이다. 국내에는 QM3에 적용한 90마력의 1.5 dCi 라인 하나만 들어왔다.

클리오의 성장세는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시장인 유럽만 보더라도 르노는 해치백과 왜건 모델을 합해 지난해 32만 1472대의 클리오를 팔았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는 클리오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체험형 브랜드 스토어 '아플리에르노 서울'을 오는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운영한다. 아플리에르노 서울은 르노 클리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러의 전시차와 시승차를 갖추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은 세계 최초로 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인 인증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LS전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동해 사업장에서 한국전기연구원의 관리 아래 500kV급 직류 케이블의 장기 신뢰성 품질 테스트를 마쳤고, 기술력을 공인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압의 교류전력을 전력 변환기를 이용해 고압의 직류전력으로 변환해 송전한 뒤 다시 교류전력으로 변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S전선은 "최근 정부가 신(新)북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 되면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히 남북한은 전압과 주파수, 전기 품질이 다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HVDC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KT "대학 축제에서 'Y 캠퍼스 어택' 즐기세요"



KT 모델들이 14일 홍익대학교에서 Y 캠퍼스 어택 이벤트를 홍보하고 있다. /KT

KT는 대학 축제와 연계한 'Y 캠퍼스 어택' 이벤트를 14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서울 소재 6개 대학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Y 캠퍼스 어택은 KT가 5월 대학 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이벤트다.

Y 캠퍼스 어택과 연계한 'Y 데이터베이스'는 KT 통털에볼루션(LTE) 고객끼리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이다. '데이터 선

물하기', '데이틱', '데이터 관리' 등 데이터 관련 서비스와 함께 9월 4일까지 가입 고객 전원에게 LTE 데이터 5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한다.

Y 캠퍼스 어택은 14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6일 홍익대, 17일 서울시립대, 18일 서강대, 19일 연세대, 24일 고려대에서 열린다. 16일, 17일, 24일에는 인기 개그맨 박명수의 스페셜 공연과 포토타임이 준비돼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대구~오사카 5만원대... 국제선 특가 이벤트

### 에어부산 '얼리 바캉스 프로모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국내선 얼리 바캉스 특가 이벤트에 이어 17일부터 국제선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부산과 대구에서 출발하는 일본, 동남아 등 국제선 20개 노선 대상으로 진행된다. 유류할증료와 공

항세를 모두 합한 1인 편도 총액 기준으로 ▲부산~후쿠오카 5만6000원 ▲부산~나고야 8만6600원 ▲부산~팜 12만5200원 ▲부산~비엔티안 16만9200원 ▲대구~오사카 5만16000원 ▲대구~삿포로 9만7900원 ▲대구~다낭 13만92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탑승 기간은 5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이달 17일 오전 11시부터 24일 까지 판매된다. /양성운 기자





# 손해율·회계기준 '2중악재'에 고개숙인 보험사 실적

1분기 실적 최대 40% 줄어  
저금리 지속·정책 리스크 탓  
손보·생보 모두 실적 부진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던 보험사들이 올 1분기 실적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지난해 잇단 보험료 인하와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이 발목을 잡았다. 생명보험사는 새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보장성 판매 확대로 순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재는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1% 감소한 301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3.9% 감소한 4319억원, 원수

<주요 손보사 자동차 보험 손해율 추이>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삼성화재	81.4%	76.4%
DB손보	85.4%	77.5%
현대해상	80.4%	77.8%
메리츠화재	78.8%	77.3%
KB손보	84.4%	78.4%
한화손보	82.1%	78.3%

[자료=각사]

보험료는 0.4% 줄어든 4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장기보험이 0.9%, 자동차보험이 2.5% 감소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된 을지로 사옥 처분이익으

<주요 보험사 1분기 당기순이익>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삼성화재	3011억원	5030억원
DB손보	1102억원	1593억원
현대해상	1060억원	1155억원
삼성생명	4158억원	5948억원

[자료=각사]



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며 "연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전체 손해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 1분기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4%로 전년 동기 76.4% 대비

크게 악화했다.

DB손해보험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30.8% 감소한 1102억원의 순이익을 나타냈다.

현대해상 역시 8.2% 감소한 1060억원,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각각 28.9%, 21.3% 줄어든 631억원, 294억원의 순이익을 보였다. KB손보는 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9.6% 감소했다.

주요 손보사들이 이처럼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한파와 폭설이 지속되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율이 크게 올랐다.

손해율은 DB손보가 85.4%로 전년 동기(77.5%) 대비 크게 악화했고 이어 KB손보 84.4%(전년 동기 78.4%), 현대해상

80.4%(77.8%), 메리츠화재 78.8%(77.3%), 한화손보 82.1%(78.3%) 등을 기록했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이 악화된 셈이다.

생명보험사 역시 1분기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전년 대비 30% 감소한 4158억원을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른 생보사 역시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저축성 판매 비율을 낮추고 보장성 판매에 주력하면서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지속과 정부 정책 리스크로 생·손보 보험사의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며 "지난달 유병력자 실손보험 판매 등 보험사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 실적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35sea@metroseoul.co.kr]

## 신한銀, 신입행원 300명 뽑는다

오는 19일 18시까지 접수 받아

신한은행이 올 상반기에 30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희망퇴직에 따른 영업 현장의 결원 충원과 서울시금고 유치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1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의 직무를 ▲기업금융·자산관리(WM) ▲정보통신기술(ICT) ▲개인금융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며, 총 300여명의 신입 행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사원서는 이날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은 기존 채용 방식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해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용을 위해 외부 인사관리(HR) 전문가와 내부통제 관리자를 포함한 '채용위원회'를 신설한다. 채용 시작 전 채용 프로세스 전반과 각 전형별 세부 기준 등을 점검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이전 실제 채용 과정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채용에서는 해당 점검 절차를 통과해야 다음 전형으로 채용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전형 단계별로 컴플라이언스리뷰(Compliance Review) 절차를 신설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서울 신한은행 본점.

이번 채용 프로세스에서는 필기시험과 직무적합도 면접 전형도 새로 만들었다.

필기시험은 전 과정 외부에 위탁해 운영되며 NCS직업기초능력 평가(75분), 금융관련 시사상식·경제지식 평가(40분)를 2교시에 나누어 진행하고, 전국 5개 주요도시(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적합도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이번 채용의 핵심"이라며 "신한은행은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도 채용 규모를 초과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0%에 도전하는 씨티銀 출신 금융인들

<연체율·부실률>

### P2P 금융의 강자

#### ⑦ 프로핏

은행경력 총 127년 직원들 모여  
간간한 신용평가·보호장치까지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바탕으로 P2P금융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있다. 주인공은 프로핏이다. 이승룡 대표를 포함한 씨티은행 출신의 금융전문가가 운영하는 P2P 업체다.

이승룡 대표는 "직원들의 은행경력을 합치면 총 127년이다"며 "P2P금융사 운영에 필요한 유연함과 보수적인 은행경력을 포함해 안정적으로 프로핏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프로핏의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4월 40억원에서 올해 약 500억원(4월 기준)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하는 대출액에 맞춰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해 연체율과 부실률 또한 연간 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년 말 6000만원 적자가 났지만 올해 벌써 1억5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며 "프로핏의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과 부실률 0%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는 먼저 제1금융권에서 상품개발, 여신심사, 인터넷 마케팅 등을 경험한 전



프로핏 이승룡 대표는 본격적인 성장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했다.

[손진영 기자 son@]

문가들이 운영한다는 점이 꼽힌다.

그는 "초창기에는 대출요청 100건 중 5건도 통과시키지 않아 간간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현재는 소문을 듣고 안정적인 대출 요청건이 증가해 20% 정도의 대출 요청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로핏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다. 프로핏은 독자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청평점 AS(Application Score)모형과 인구통계 생애주기 평점, DLS(Demographic Lifecycle Score)를 결합한 신용평가 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

이 대표는 "단순히 아파트 담보만 보지 않고 차주의 신용평가까지도 확인해 대

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간한 신용평가모델에도 손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프로핏은 또다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 대표는 "부실 채권에 관한 사후관리 및 처리(경매 집행 등)는 매입법인이 하고, 플랫폼은 프로핏이 제공하는 형식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P2P금융에 맞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자에게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담보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한도를 제한하기보다 대출자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가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왼쪽부터)NH농협은행 김영훈 서울강서사업부장, 한성식 서울지역 노조위원장, 우진하 노조위원장, 김태균 마곡역지점장, 이대훈 은행장, 김학균 서울영업본부장 [NH농협은행]

### NH농협은행

## 마곡역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마곡역 인근 강서구 마곡중앙로에 마곡역지점을 개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대훈 은행장과 우진하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위원장, 김

학균 서울영업본부장, 한성식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서울지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개점식에 참석한 이 행장은 "마곡지구는 IT와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의 혁신기지"라며 "마곡역지점은 수요자 중심으로 고객에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KEB하나은행

##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기원 정기에금 특별금리 이벤트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고, KEB하나은행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에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금리 정기에금은 1년제 상품으로 연 2.2%포인트(5월15일 기준, 세전)의 금리혜택이 제공되고, 총 판매한도는 5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 자동 종료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KEB하나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IQ Bank) 및 콜센터에서 가입 가능



하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오는 6월 15일까지 '가자! 러시아로~ 축구는 하나다!'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 필승코리아적금 2018' 상품을 가입한 손님중 추첨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입장

권과 K리그 경기 입장권, 대표팀 친필사인 유니폼 및 축구공을 제공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 및 활동을 통해 그룹의 '함께 성장,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 안주하면 안주夜야

판매 NO. 1  
2016.8-2017.12 전국판매액 기준  
Linkaztec조리냉동 술안주 대상







### SK증권 3년 만기 ELS 등 2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18일까지 추가연계증권(ELS) 1종 및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50회 ELS’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셱(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개월), 85% (18~24개월), 80% (30개월), 65% (36개월) 이상이 되면 연 6.6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6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최소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손영희 기자

# 강남까지 20분... GTX발 땅값 ‘파삼공세’

(파주-삼성역 인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심 쏠려 대곡역 투자 매수 장기적 관점 봐야

경기도 파주와 서울 강남 삼성을 잇는 GTX-A노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일대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주요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투자 분위기가 달아 오르는 모습이다.

GTX-A노선은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경기도 파주 운정역과 킨텍스, 대곡역, 서울역, 삼성역으로 이어지는 43.6km 구간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만에 주파하는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일산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킨텍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15일 “고양시 대화동의 땅값이 현재 3.3㎡당 80만~9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30만원 오른 상태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커다란 변동이 없는 상태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 일대(왼쪽)와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전경.

고양시 대화동의 아파트 1㎡당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332만원에서 4월 338만원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중개업자는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문촌마을을 19단지 99㎡가 5억원대 초반 132㎡는 6억원 초·중반, 17단지 158㎡형이 6억원대 중반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고양시 대화역이 있는 대장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가 관건이다. 이곳을 현재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지나고 있다. 대곡역~소사 중전철 노선에도 포함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GTX-A노선 개통으로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생기면 수도권 서북부지역 광역교통의 요충

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대곡역 일대는 현재 땅값이 3.3㎡당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30만원 올랐다”며 “투자 목적으로 땅을 매수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함께 개발호재가 겹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중개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입주 예정인 ‘운정 센트럴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분양가에서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두 아파트는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 파주(운정)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한편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27일 3조원 규모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권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5월 초 정부협상단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며 “최근 판문점선언 등 정치적 흐름이나 GTX-A 노선 개통 등 호재로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 단기간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사진=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키움증권 ‘ISA 수익률 테스트’ 이벤트

키움증권은 6월 말까지 ‘ISA 수익률 테스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키움증권 ISA 가입 시(최소 1만원) 해피콘 1만원권과 현금 5000원(ISA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의 ISA MP(모델포트폴리오)는 총 3종으로 기본투자형, 목표달성형, 배당형이 있다. 이중 기본투자형은 글로벌 자산배분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손영희 기자

### 대신증권 재테크 카페회원 대상 로보 자산관리 세미나

대신증권은 16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3층에서 인터넷 재테크 동호회인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6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는 2018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부동산, 금융 절세투자전략을, 2부는 국내외 경기동향과 비용의 복리효과 그리고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소개 및 활용법을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 국내 1위 복강경 의료장비 업체... 영업이익률 44%

## IPO 기자간담회 세종메디칼 세계 첫 골다공증 진단키트 개발중

헬스케어장비업체 세종메디칼이 달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18, 21일 청약 실시하고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세종메디칼은 국내 최초로 복강경 수술기인 투관침(Trocar)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다.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3사와 함께 복강경 수술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투관침 뿐만 아니라 복강경 수술 필수품인 복강경용 장기적출주머니(Bag) 및 봉합기(Loop)까지 개발해 복강경 수술기 국산화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출은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 해 매출은



15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성한 세종메디칼 대표이사가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45억원, 영업이익은 61.0% 증가한 63억원을 기록했다. 또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개발 자산화 비중은 0%로 전액 비용처리를 통해 재무건정성을 갖췄다.

해당기간 영업이익률은 30.7%에서 43.5%로 높아졌다. 이는 제품 기획부터 공급까지 전기술 공정 내재화를 통한 일괄생산체제 구축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다.

조성한 세종메디칼 대표이사는 “원스톱 생산시스템으로 불량률을 크게 낮춘 덕분에 원가율이 좋아졌다”며 “매출이 커질수록 이익률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 시작했다. 현재까지 해외 35개국 27개사에 진출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FDA 등록을 지난해 완료했고, 인도시장과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문생산(OEM)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연 평균 13%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세계 로봇수술기 시장에도 발을 들였다.

조 대표는 “로봇수술 시스템을 개발한 미래컴퍼니에 맞는 전용 트로카(Trocar) 개발에 성공해 6월부터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세종메디칼은 자회사 세종바이오메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최초로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 있는 면역 혈액 진단 키트(kit)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또 협심증을 진단할 수 있는 현장 진단(POCT), 자궁경부암 진단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1만800원~1만3700원으로 총 203만주를 공모한다. 이 중 신주모집은 122만주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될 약 278억원의 자금은 해외진출에 사용될 계획이다. 오는 29일 상장예정인 세종메디칼의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글·사진= 손영희 기자 sonumji301@

# 아파트 지니... 분양 열기 지피는 ‘오피스텔’

## 1인가구 증가·자금부담 적어 인기

최근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1~2인가구가 늘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도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몰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인 가구 수는 317만675명이었다. 2010년에는 414만2165명, 2015년 520만344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39만7615명으로 전년 대비 3.73%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에 따라 수요자들은 경제적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1억4141만원으로 아파트보다 8500만원 가량 낮았다. 또 같은 시점 전국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7749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보다 약 5000만원 저렴한 수치를 보였다. 오피

스텔은 아파트 전셋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고, 전셋집마련 자금 부담도 적은데다 주로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공간이다.

실제로 이러한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뜨겁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엠디엠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분양한 ‘광교 다샵 레이크시티’는 평균 5.5대 1, 최고 26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이달 현대건설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일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622실 모집에 총 6만5546건이 접수돼 평균 10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로 설계되거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3·4Bay 평면설계로 아파트 내부와 유사하거나 테라스, 복층 구조 등과 같은 특화설계를 적용하는가 하면 드레스룸, 팬트리, 천정고, 주차공간 확장 등을 통해 공간활용도 높여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 수당·숙식비 최저임금에 미포함땐 外人근로자가 더 받아

## 최저임금 산입범위 토론회

업종·연령·지역별 차등적용 주장  
“일본·캐나다·호주 등에선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이달 중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음식점업, 농·임·어업, 이·미용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55세 이상 또는 일반 근로자, 공무원 정년인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덜 올리는 등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차등화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자’라는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자’는 토론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주제의 토론회에서 기초보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할 바 있다.

노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월 기본급 130만원, 상여금 연 600%,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 월 40만원 등 매달

총 235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A씨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는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

A씨가 받는 기본급, 즉 월 130만원이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입범위가 협소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수당, 숙식비 등을 제외하고

있지만 산입범위는 ‘명칭’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현장에서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임금과 법적 기준에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숙박비(85%)와 식비(86.3%)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 임금이 역전되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

려도 나오고 있다.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화도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던 내용이다.

최저임금법 역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20% 이상 업종(1단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산업 평균(1700만원)보다 낮은 업종(2단계)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산업 평균(6200만원)보다 낮은 업종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종업원 1인당 성과가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남측 평화의 집서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

## ‘판문점선언’ 후속조치 착착

리선권 등 北 대표단 5명 구성  
8·15 이산가족 상봉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이후 후속조치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우선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1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1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은 지난 8일 우리 측이 14일 열자고 북측에 제의한 이후 북측이 다시 16일로 하자고 수정제의하면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은 수행원, 지원인원, 기자단 등 총 29명을 대표단으로 보낸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우리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5명 내외의 대표단을 구성할 예정



이날엔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일지리수석. /연합뉴스

이다. 이에 따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6월12일로 잡히는 등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다른 한 축인 남북관계도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관계 발전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달 중순에 고위급 회담을 연다는 정부 계획대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미회담과 함께 남북관계 일정도 병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담에선 우선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여러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분야별 회담 일정을 논의할 전망이다.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을 논의할 장성급 군사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적십자회담,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를 위한 체육회담 등의 일정도 잡아야 한다.

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에 개최 일정이 박혀 있고, 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은 각각 8월로 예정된 이벤트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치와 인적 구성, 개소 시기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는 공식일정을 잡지 않는 등 모든 초점을 한미정상회담에 맞춘 모습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차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야 하는지 등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지리수석, 홍남표 경제수석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승호 기자

# 박원순의 3選 도전 첫 발은 ‘송파’

최재성 후보 지원 송파구 선택  
“서울의 승리가 전국 승리 견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첫발을 내딛은 곳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격전지’ 송파구였다.

박 후보는 오전 7시 20분 송파구 잠실 새내역 앞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출정식을 대신했다. 송파를 재선거에 출마하는 같은 당 최재성 후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울의 승리가 수도권의 승리, 나아가 전국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고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승리의 야전 사령관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리를 함께한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를 소개하며 “송파에서 승리해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향해 “제2의 정권 교체 꼭 이뤄주시기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어 송파구에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앞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만난 뒤 탄천 일대를 찾았다.

그는 오후 서울내 또 다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노원병을 찾아 같은 당 김성한 후보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중구와 중랑구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이들 두 곳은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각각 3선과 재선 도전에 나서는 곳이다.

박 후보는 오는 16일께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선대위원장은 서울지역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위주로 꾸리고, 노동운동가 출신 비례대표 이용득 의원이 합류한다. 선대본부장은 남인순·홍익표 의원이, 비서실장은 김영호 의원이 맡는다.

수석대변인은 고용진 의원이 맡게 되며, 대변인으로는 박양수 전 서울시원과 김민 전 민주당 디지털대변인이 활동한다. /김현정 기자 hjk1@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을 찾아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 함께 어린이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스1



# 숙박 O2O 빅2의 무한진화

숙소예약 넘어 여가활동까지  
글로벌 영향력 넓히는 준비도  
바른후기 등 서비스 질 높여  
호텔업 등 인력난 해소 기여



모텔 중개로 시작한 숙박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사업) 업계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진화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숙박 O2O의 양대 산맥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소 예약을 넘어 여가활동까지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17년 종합 숙박업으로 전환한 여기어때는 호텔, 리조트, 캠핑, 한옥, 게스트 하우스 등의 숙박 예약까지 받을 넓혔다.

현재는 올해를 목표로 해외 숙박과 액티비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가능했던 숙박예약을 일

본, 중국, 태국, 대만 등을 시작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출시 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액티비티 예약은 이용자가 여행이나 출장, 모임, 데이트 등 숙소 이용 목적에 맞는 야외활동을 추천받아 예약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제주 여행을 목적으로 숙박을 예약하는 사람은 현지에서 즐길만한 요트투어, 스쿠버다이빙, 썰라인 등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VR(가상현실) 객실정보'가 그중 하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숙박을 예약하기 전 360도로 객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사진만 보고 찾아가고 고객이 방이 다르다고 항의하는 일이 많아 도입했는데 VR로 실제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방문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성장세를 반영하듯 인력 채용과 공격적인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 지난 3월 2018년 비전 발표에서 "올해 200명이 넘는 인재를 채용하고, 대규모 투자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인력 채용에 엔지니어 출신인 심명섭 대표가 직접 나서 우수 개발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숙박과 액티비티를 포함해 컨시어지, AI, IoT 등 시너지가

# 해외숙박도 '여기어때' 레저·여가도 '야놀자'

가능한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서 사업성장 속도를 가속화해 나간다.

여기어때는 작년 온라인사업 매출 520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했다. 종합 숙박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이후 1년 만에 거둔 성과로 매출은 2016년 대비 2배 넘게 성장했다.

야놀자도 올해 R&D 인력 100명을 포함한 열 개 직군에서 300여명을 채용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작년엔 280명을 뽑았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가 있다. 2015년 367억원이던 야놀자의 매출은 지난해 1005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지난 3년 간 국내 스타트업 역대 최고 금액인 총 1510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야놀자는 올 한 해 통합 여가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R.E.S.T.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

E.S.T.는 Refresh(재충전), Entertain(오락), Stay(숙박), Travel(여행)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새로운 호텔 체인 브랜드 '헤이'를 선보였으며, 일본 최대 OTA(온라인 여행사) 라쿠텐라이플스테이와 독점 제휴를 맺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레저액티비티 플랫폼 기업 '레저큐'를 전격 인수하며, 여가와 레저, 액티비티, 숙박 등을 모두 아울러 여가 시장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추진 중인 비즈니스 로드맵을 계속 구체화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객실 서비스인 '마이룸', 업체를 대상으로 한 몰카 예방 교육 프로그램, 바른 후기 캠페인, 안심예약제 등을 선보이며 숙박 서비스의 질도 높였고 제휴점과의 상생을 위해 숙박업 구인구직 사이트인 '호텔업'을 운영하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조직안정이 최우선... 소통·협력 중요”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첫 간부회의 주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최우선 과제로 조직안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윤 원장은 15일 오전 첫 간부회의에서 "무엇보다 조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들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감독기관의 '정명(正名)'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감독기관의 신뢰성은 엄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통해 형성됨을 강조하면서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흥국 불안과 관련해서는 예의 주시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

으로 통화 가치가 절하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큰 폭 상승하는 등 우려가 높아졌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는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가치와 CDS 프리미엄 등이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신흥국 금융 불안은 글로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취약 신흥국의 현황과 금융회사 익스포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시장관련 부서와 각 감독국은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잠재 리스크를 예의 주시하고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파급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사단법인 세종마을가꾸기회 주최로 세종즉위 600돌, 탄신 621돌 기념 세종대왕 어가행렬 재현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SK이노, 영업이익 3분의2 비정유 부문서 달성

1분기 영업이익 7116억 기록

화학·윤활유·석유개발 성과



SK이노베이션은 15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연결기준 매출 12조 1661억원, 영업이익 711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정기보수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물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각각 3878억원(3.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정제마진 약세 및 유가 상승폭 둔화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감소로 1337억원(15.8%) 줄었다.

SK이노베이션은 업황 부진 속에서도 정유, 비정유 부문이 고른 성과를 보이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15.8% 감소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1분기는 불안정한 국제제세에 따른 유가 변동과 환율 하락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내 에너지·화학 기업 실적 저조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환경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의 64.4%에 달하

28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분기는 견조한 수요가 예상되는 아모라틱 사업에 반해, 역외 저가물량 유입의 영향을 받을 올레핀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세가 전망된다.

윤활유 사업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판매량 감소 및 유가 상승의 시차효과로 전 분기 대비 171억 감소한 128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상반기에는 정기보수, 자동차 연비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에 따라 견조한 고급기 수요가 예상되며 2분기 시황은 약보합세로 전망된다.

석유개발사업은 유가 상승에도 페루 광구 사정으로 인한 판매량 감소로 전 분기 대비 64억원 감소한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페루 광구 파이프라인 문제는 일시적인 것으로 2분기에 정상적으로 회복됐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현시점에서 SK루브리컨츠의 재성장 추진 계획은 없다"며 "SK루브리컨츠는 미래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

## 원·달러 환율 상승에 '외화예금' 감소세

한달 새 31억 1000만 달러 줄어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업과 개인이 현물환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8년 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전월 말 대비 31억1000만 달러 감소한 782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732억8000만 달러 이후 6개월 만 최저치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일컫는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기업이 현물환 매도를 늘려 거주자 외화예금이 줄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말 1063.5원에서 한 달 새 1068.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달러화 외화예금은 700억 8000만 달러에서 663억5000만 달러로 37억 3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 예금과 유로화 예금은 이 기간 각각 2억8000만 달러, 4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봉준 기자



서로를 생각하는  
가족의 마음은  
늘 같은 곳을 향합니다

가족을 이어주는 마음이  
걱정 없이 든든할 수 있도록

현대해상은 변함없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마음 곁에  
현대해상이 있습니다





## 지난해 대부 잔액 16.5조 “대부업 등록여부 꼭 확인”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등록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수료 든 연체이자든 대출과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대부업체 이용시 유용한 사항을 15일 안내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 이용자는 250만명, 대부 잔액도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은 제각각이지만 대부업자가 대출과 관련해 받았다면 모두 이자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니 부담할 필요가 없다.

대출을 상환할 때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대출계약서나 상환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다.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만약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부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하면 된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했다면 대출잔액과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페리납품을 위해 이륙하고 있는 T-50TH 태국 수출기.

### KAI-공군

## 국산항공기 신뢰성 높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오는 17일까지 공군회관에서 공군군수사령부 주관으로 ‘제9회 K-TCG(국산항공기 국제기술협력회의) & SMG(비행안전관리자회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공군, 방사청, KAI 등 관계자 100여 명과 국산 항공기 구매국인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태국, 필리핀, 세네갈 등 총 6개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

공군은 지난 2009년 국제기술협력기구 ‘K-TCG’를 발족하고 가동률 상승, 정비시간 단축, 유지비 절감 등 축적된 국산항공기 운용효율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국과 잠재적인 마케팅 대상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함께 우수성을 알리었다.

K-TCG 회의는 국산항공기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비행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SMG회의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양대 조진수 교수의 ‘미래 군수환경 대비 항공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KAI가 항공기 ‘총수명주기 관리 방안’과 ‘KF-X 개발 진행 현황’을 발표한다. 또 군수사에서는 ‘한국공군 항공기 수명관리 방안 및 주요 품질 개선 사항’을 발표한다.

/양성운 기자

## 2년 6개월 만에 공식석상 나온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리니지M 홀로서기… 글로벌 IP로 키울 것”

(지식재산권)

### ‘리니지M’ 1주년 간담회

PC ‘리니지’와 결별, 투트랙 전략 대만 이어 H·북미 버전 개발 계획 ‘블랙 플레이’로 새롭게 업데이트

“리니지를 벗어나 ‘리니지M’만의 오리진리티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겠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15일 서울 역삼동 더 라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작인 PC 리니지와 ‘리니지M’의 결별을 선언했다. 리니지M 1주년을 맞아 모바일 게임으로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보인 것.

김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2015년 12월 리니지 출시 17주년 기념 간담회 이후 처음이다.

리니지M은 엔씨소프트의 대표적인 지식재산권(IP) ‘리니지’를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옮긴 게임이다. 지난해 6월 출시해 첫날부터 이용자 210만명, 매출 10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여간 꾸준히 엔씨소프트의 실적을 견인한 ‘효자’ 게임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만 진출 이후 현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리니지M 서비스 1주년 미디어 간담회 ‘YEAR ONE’에서 키노트를 발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에서도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김택진 대표는 “1여년 간의 과정을 통해 리니지M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20년 만에 리니지M만의 신규 클래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니지M의 독자 노선이 확실해진 셈이다.

엔씨는 출시 1년을 맞아 리니지M의 그래픽을 풀고화질(HD)급으로 전면 개편한다. 독자 콘텐츠로는 신규 클래스 ‘총사’를 공개했다. 총사는 리니지M에서 처음 추가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PC와 모바일 게임의 독자 노선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해의 시장도 본격 공략한다. 이날 엔

씨소프트는 일본, 중국, 북미 시장을 겨냥한 리니지M 글로벌 버전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한국과 대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리니지M과는 다른 새 게임이다. 정확한 출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통상적으로 PC 온라인 게임보다 수명이 짧다는 우려가 있다. 20여년 이상 이용자들이 꾸준히 즐겨온 PC 리니지와 비교해 리니지M의 수명이 짧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성구 엔씨소프트 리니지 유닛장은 “리니지M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과는 유저 이탈 등에

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PC 리니지처럼 오래 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리니지M의 경우 매주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니지M의 독자 노선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PC 리니지에서 넘어온 이용자들이 리니지M으로 끌고오긴 했지만 꾸준히 새로 유입되는 이용자가 많고, 2030세대의 젊은층이 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PC와 모바일 게임 모두 각자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변한 리니지M은 오는 30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리니지M의 첫번째 에피소드인 ‘블랙 플레이’도 업데이트하고, 리니지 IP의 대표 콘텐츠인 ‘드래곤 레이드’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한다. 이용자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블랙 플레이 업데이트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엔씨는 이날 리니지M 출시 1주년 기념 선물로 ‘TJ’s 쿠폰’도 공개했다. 이용자는 ‘TJ’s 쿠폰’으로 리니지M 출시 이후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강화 실패로 소멸된 아이템 중 하나를 복구할 수 있다. 모든 리니지M 이용자는 6월 20일에 쿠폰을 받는다

/김민진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中에 축구장 14개 규모 물류센터 개소

# 동북 3성 공략 박차… 북방물류 허브 선점 기대

선양에 ‘플래그십 센터’ 오픈  
“동북 지역 1억명 소비자 위한  
맞춤 물류서비스도 제공할 것”

남북 화해무드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CJ대한통운이 러시아, 중국 등을 염두에 둔 북방지역 물류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극동지역 거점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이들 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 개발을 위한 ‘신북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도 현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박근태 대표는 지난해 말 새로 출범한 ‘한·러 기업협의회’ 회장을 맡아 러시아와 중국의 동북 3성, 몽골 등을 아우르는 지역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도 맡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중국 랴오닝성 최대 도시이면서 성도인 선양에 ‘선양 플래



선양 플래그십센터 조감도.

그십센터’를 15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선양시의 회산경제개발구에 자리잡고 있는 플래그십센터는 부지면적만 9만7630㎡(약 3만평)로 국제규격 축구장 14개와 맞먹는 넓이다. 건축면적은 5만4200㎡(약 1만6400평)로 다양한 랙(Rack) 보관설비와 평치 보관구역, 냉장구역 등을 갖추고 있어 일 반화물 뿐만 아니라 냉장화물, 대형 중량화물 보관이 가능하다.

또 33대의 대형 차량이 동시 접안 가능한 독(Dock)과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

고 있다. 특히 반경 10km 이내에 자동차 제조, 부품 및 식품, 사료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물류 수요가 많고 5km 이내에 고속도로가, 10km 이내에 철도가 각각 위치하는 등 교통접근성이 우수해 물류센터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관계자는 “전통적인 공업 중심지로 자동차, 철강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선양을 중심으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지역 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

서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와 물류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과 같은 산업재뿐 아니라 동북 3성지역 1억명의 소비자들을 위한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최적화된 물류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아울러 자회사인 CJ로킨, CJ스피덱스가 갖춘 CJ로킨의 중국 전역 48개 거점과 50만㎡에 이르는 22개 물류센터, CJ스피덱스의 40여개 지역 물류센터와 4만여 협력사의 촘촘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중국 내 사업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근태 사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북방경제권과 연결되는 경제, 물류의 요지인 동북 3성 지역 선제적 투자를 통한 현지 물류 사업역량 강화와 더불어 물류 네트워크 확대, TCR, T SR과 연계한 범 유라시아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개발 등 북방물류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이스타항공 인천~러 블라디보스톡 신규 취항

이스타항공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신규취항한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6월13일부터 인천-블라디보스톡 주 3회(수, 금, 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운항스케줄은 인천-블라디보스톡 출발편(ZE991)은 오후 10시45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새벽 2시

에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복귀편(ZE992)은 현지시간 새벽 2시50분에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5시 도착한다.

이스타항공은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중 인천-블라디보스톡 노선 두 번째 취항 항공사로 기존 대형항공사(FSC) 위주 독점노선에 신규취항하면서



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관광 수요창출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블라디보스톡은 평균 비행시간 약 2

시간 30분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이면서도 유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신규취항을 기념하여 15일 오후 2시부터 오는 22일 일주일간 ‘인천-블라디보스톡 신규취항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이벤트를 통해 탑승기간 6월13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인천-블라디보스톡 노선 항공권을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9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위라벨 확산에 발 벗고 나서는 경총

**경총, 일·생활 균형 기업 간담회**  
시차출퇴근 등 저출산 지원제 시행

경제계가 일과 생활균형(위라벨)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선다.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먼저 일과 과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 열고,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은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제는 경총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정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T&G와 풀무원이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 선정돼 발표됐다.

KT&G는 임신·출산기의 직원에게 난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총 3회, 연간 1000만원 한도내), 출산 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육아기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산후가 후 별도 절차없이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 육아휴직제' 시행, 육아휴직기간 2년까지 유급 확대 운영, 보육수당 지원·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휴직자 업무 복구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은 출산 전후 휴가(90일)와 연계해 1년 간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 사용토록 한 '자동육아휴직제', 복직 1개월 전 해피콜·시차출퇴근제 등 육아휴직 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 정책브리핑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왼쪽)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이 면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농식품부

# 농식품부, 한국쌀 원조 추진현황 논의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UN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 쌀 원조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와 WFP 사무총장간 양자 면담은 최근 6개월 사이에 3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면담을 통해 세계식량원조협약(FAC) 가입 이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와 WFP간 이어오고 있는 협력관

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10일 군산항에서 개최된 식량원조 출항식에 참석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쌀이 현지 수혜자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WFP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과 데이비드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 공여국으로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만큼 지속적인 식량원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WFP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업부, 싱가포르와 산업·에너지 등 협력

백운규 장관 2일간 현지방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14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과 산업·에너지·통상·무역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장관의 이번 싱가포르 방문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을 ASEAN의 핵심국가인 싱가포르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백 장관은 우선 이날 찬 춘싱(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싱 산업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LNG 등 에너지 협력, 자유로운 교역질서 구축 등을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장관은 바이오·헬스, 전기·

자율차 등 한국의 5대 신산업 중심 혁신 성장과 싱가포르의 차세대 국가비전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공감하고 4차 산업 기반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차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학계,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스마트그리드(에너지자립성 등) 등 에너지 신산업, LNG 협력 등을 위해 양국 정부가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투자과 관련해 백 장관은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연이은 회담 성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의 투자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반도 특수성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AI 기술개발에 2.2조원 투입

**4차 혁명위, AI R&D 전략 의결**  
공공분야 대형 AI프로젝트 추진  
고위험·차세대 중장기 투자 병행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방, 의료, 안전 등 공공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도 추진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투자로 우리나라가 2022년 세계 4대 AI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15일 6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은 담은 '인공지능(AI) R&D(연구개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AI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하지만 AI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두루 발전돼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다"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독자적인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대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고위험·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 지원도



장석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공지능 R&D 및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행할 계획이다. 신약, 미래소재 등 타분야와의 융합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 탐색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개발주기를 15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뇌과학 연구 등 기초과학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해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AI 기술을 개발할 인재도 양성한다. 내년부터 인공지능대학원을 2022년까지 6개를 신설하고, 기존 대학연구센터에 AI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AI 연구인력 1400명과 제품·서비스 창출 인력 3600명 등 총 5000여명의 AI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분야에 협력형 연구기반도 조성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학습용 데이터 1억6000만 건과 한국어 말뭉치 152억7000만 어절을 AI 허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5호기에 AI 전용 자원을 할당, 2022년에는 400여 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지원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계기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이 대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산업·과학기술 분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전략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월드클래스 기업 41곳 선정... 해외진출 지원

**산업·중기벤처부, 총 300곳 선정**  
신규 선정기업 평균 매출 1169억  
기존 지원기업 6년간 매출 16% ↑

정부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선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위한 R&D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금융·인력·지식재산권(IP)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포함될 41개사를 새로 선정하고 서울 대한상공회의

소에서 선정서를 수여했다.

지난해까지 259개 기업을 월드클래스 300으로 선정한 정부는 이번에 41개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면서 목표로 했던 300개사 선정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41개 기업은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30개사로 평균 매출액 1169억원, R&D 집약도 5.3%, 수출 비중은 53.1%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장비가 11개사(26.8%), 자동차 9개사(22.0%), 전자·통신 5개사(12.2%), 의료·광학기기 5개사(12.2%) 순이다.

그간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들은 R&D·수출·금융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11년~2016년 간 매출액은 15.8%, 수출은 17.4%, 고용은 14.9% 증

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2016년까지 종료된 과제 46개 중 35개 과제가 사업화에 성공해 총 1조 800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해 1133억 원의 지원 예산 대비 약 16배의 성과를 이뤘다.

실제 2012년 선정된 보일러 제조업체인 '경동나비엔'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그린홈 구현을 위한 가정용 초고효율 에너지기 기술'을 개발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

이를 바탕으로 매출액은 2012년 3414억원에서 지난해 5698억원으로 67% 증가했고, 수출액도 1120억원에서 2693억원으로 140%가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정유라 입학·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피고인들의 상고 및 검사의 최서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전 총장은 징역 2년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화여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딸 정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정씨, 최경희 전 총장 등과



최순실 씨. /연합뉴스

공모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정씨가 결석하고 과제를 미제출해도 정상 학점을 취득 학사관리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정

전 이화여대 총장에 징역 2년  
전 입학처장에 징역 1년 6개월

담고 체육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중 기자 joker@



# 바다 보양식 ‘전복의 굴욕’... 공급 과잉에 가격 반토막

지난달 말 1kg 평균 2만 9567원  
2014년 5만3236원 比 55.5% ↓  
생산량은 2015년 比 59.1% 늘어



/픽스타

귀하다귀한 대접을 받던 전복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소비량이 제자리를 걷는 동안 공급량이 넘쳐나면서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있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10마리, 1kg 기준 전복 산지 가격은 지난달 말 평균 2만 9567원을 기록해 3만원이 무너졌다.

평균 산지가는 2014년 5만3236원, 2015년 4만4750원, 2016년 3만9451원, 지난해 4만1809원이었다. 가격이 높았던 2014년과 비교해 55.5% 수준에 그친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1월 3만6800원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최저가 행진을

보였다.

전복은 산란기 전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3~5월에 집중적으로 출하돼 공급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반등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전남 전복 생산량은 1만5933t

으로 2015년(1만12t)보다 59.1%나 늘었다.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1만8000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양식 면허는 지속해서 늘었고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됐던 큰 태풍,

적조도 없어 바다 상황이 좋았다.

반면 국내 소비세는 제자리에 머물렀으며 한때 수출이 증가했던 중국도 내수 시장 수급이 안정되면서 수출 판로도 막혔다.

복잡한 유통 구조 탓에 고작 1천~2000원 내려간 가격을 접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는 꿈쩍하지 않는다.

그나마 25마리에 1kg 나가는 삼계탕, 해물탕용 작은 전복들만 꾸준히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민들은 생산 원가도 보장받기 어렵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초기 금융비용을 안고 양식을 하는 경우 이자도 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수산 당국은 뒤늦게 신규 면허를 제한하고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적용 품목에서 전복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다.

전국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도에서는 대대적인 판촉 행사가 시작됐다.

완도군은 지역별 향우회, 정부 기관·단체, 주요 공사·공단에 공문을 발송해 전복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요청했다.

GS리테일,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온라인 판매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전복을 팔고 지난 1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효한마당 행사 등에 간이 직판장을 열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완도군과 손잡고 전국 모든 점포에서 완도산 전복을 팔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규 면허 제한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손질 판매 등 소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해 생산·유통·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 전남개발공사 소외계층 기부실적 계약평가 반영

전남개발공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실적을 계약평가에 반영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전남개발공사는 15일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자 기존 제도를 개선해 사회적 가치 실현 항목을 계약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는 정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을 우대하기로 했다.

제도 실행력을 강화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2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난 3월 이미 도입됐다.

다음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에서 계약 전년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이 계약 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우대하는 것으로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공사·용역·물품 등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을 신뢰성 심사 반영한다.

기부실적은 기업 매출액 대비 0.04%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지난해 전남개발공사 계약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기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전남개발공사는 하반기부터 중앙 부처 건의 등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광완 전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내 시설에 실질적인 기부 효과나 나타나도록 가점 배정 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지방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제도를 통해 소외계층이 도움을 받고 기부 문화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 보성군 ‘별교꼬막 인공치패’ 생산 순항

보성군에서는 꼬막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치패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다양한 패류 치패생산을 위해 건립된 별교꼬막종묘배양장에서 겨울철 꼬막모패를 120일 정도 관리해 지난 4월말 1차 부화를 실시해 유생 2억마가 성공적으로 부화됐고 5월 10일 2차 부화로 유생 20억마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도 6월 중순까지는 유생 부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화된 유생이 착저하여 치패로 성장되면 오는 8월말까지 참꼬막 치패 100kg를 중간육성장에 공급한다.

1.5mm내외의 치패 100kg를 중간육성장에서 키워 1.5cm내외의 종패가 되었을 때는 100톤이 생산된다. 3년 후 먹을 수 있는 성패로 자랄 경우에는 500톤의 생산이 예상돼 약 60억원의 소득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별교꼬막종묘배양장’을 지난해 6월부터 직영해 오면서 자원재생과 어민 소득창출을 위



별교꼬막 인공치패

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력을 겸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꼬막산업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꼬막뿐만 아니라 맛, 가리비 등 각종 패류치패 생산에도 적극 매진하여 보성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패류생산 전진기지로 거듭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점유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패류산업의 다각적인 개발용역 추진 등으로 패류의 브랜드화·산업화·규모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지난해 보성다향대축제에 참석한 외국 관광객들이 녹차밭에서 햇차를 따고 있다.



## “보성다향대축제 ‘차 소풍’ 다녀가세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등 다채  
해안 투어·썩잡기 체험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제44회를 맞이하는 보성다향대축제는 ‘차소풍’이라는 주제로 관광객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는 차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을 과감히 없애고, 차를 쉽고 개성 있게 즐길 수 있는 소풍같은 축제라는 콘셉트로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차문화 축제인 다향대축제는 차문화 체험·전시·경연, 차마켓 등 8개분야 5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와 축제의 대중화를 이끌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이색적인 전시체험 공간인 ‘차산업관’을 신설하여 보성의 차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변 광장에는 가족놀이시설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꾸몄다.

‘티아트관’과 ‘티푸드관’에는 아름다운 테이블웨어와 녹차음식을 전시하여 차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객의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햇차만들기’ 체험은 작년보다 뒤음술이 13개가 늘어난 총 34개로 확대 설치하고, 차밭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차밭 쉽터도 마련된다.

특히, 청명한 달빛 아래 광장무대에서 펼쳐질 ‘달빛차회’는 지난해보다 횟수를 늘려 3일간 운영되며, 보성차인들이 주축이 되어 관광객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한, 북측차밭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차 매니아들의 낭만과 개성있는 찻자리인 ‘월인천강 찻자리’가 진행된다.

아련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 ‘순금차 잎 보물찾기’와 ‘스마트폰 축제 스탬프

투어 앱’ 등 이색적인 이벤트가 진행되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차박물관 광장에는 녹차로 만든 비누, 녹차 인절미, 녹차 초콜릿, 녹차 뷰티케어 등 젊은 층과 외국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공간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남도바닷길 회천면 근치마을에서는 아름다운 득량만 해안투어와 재미있는 썩잡기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차밭과 더불어 갯벌에서의 즐거움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주병석 축제추진위원장은 “차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은 마을마다 차를 뒤는 훈김과 차향이 날리 퍼지는 시기이다”며, “싱글러운 5월 가족나들이 장소로 인기만점인 다향대축제장에 방문하여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 평화통일 ‘청소년 랩 콘테스트’ 열린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등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전남 진도군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전국 청소년 프리스타일 랩 콘테스트’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문재인 대통령)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역회의가 주관한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남북 평화통일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한 랩(rap)을 소재로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도록 했다.

특히 처음 개최된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말까지 경상, 전라, 경기, 대전, 대구, 서울, 부산, 충청, 광주, 울산, 강원 등 전국에서 개인과 단체 명의로 무려 100여개의 작품이 접수돼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후 대회 홈페이지에서 이들 작품에

대한 조희수와 추천수를 집계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작품으로 20개가 최종 선정됐다.

본선 행사는 19일 오후 4시부터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야외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시상은 ▲1위 의장(대통령)상과 상금 100만원 ▲2위 민주평통 사무처장상과 상금 50만원 ▲3위 민주평통 부의장상과 상금 30만원 ▲인기상 2명(상금 20만원) ▲참가상 10명(상금 10만원)이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 “새 브랜드 ‘익스프레스’ 오픈 한국인 입맛 맞춰 메뉴 개편”

**인터뷰**  
고재홍 모스버거 대표

모스버거는 1972년 일본 도쿄 나리마스 에 처음 선보인 이래 40년간 일본에서 토종 햄버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내 매장 수는 1300여개다. 일본인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숙하고 따뜻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버거가 다름없다.

모스버거는 주문 즉시 바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농약 채소를 사용해 신선한 햄버거 맛도 제공한다.

지난 2011년 9월 미디어얼그룹과 일본 모스푸드서비스 지분 7대 3 비율로 모스버거 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에 진출했다. 현재 지역점포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맹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고재홍 대표를 지난 8일 모스버거 명동중앙점에서 만나 향후 모스버거의 신사업, 비전 등을 들었다.

고대표의 첫 일성은 국내 모스버거 성장과정에 대한 스토리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 모두 한국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브랜드를 안착시키고자 하는 바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스피드있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스버거는 기존의 매장과 다른 콘셉트의 매장도 준비 중이다. 그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대부분 생계형이며, 그들의 창업 비용은 여유 자금이나 투자금이 아니고 미래에 쓸 노후 자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다. 수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에 소자본, 최소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형 매장으로 가맹 사업을 할 계획이다. 창업 비용은 1억 내외, 10~15평 규모의 가게에서 부부 2명이 운영하는 것이 우리

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전했다.

고대표는 모스버거의 가맹사업 방향도 제시했다. 고대표는 “로열티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수수료나 이익을 취할 생각은 없다. 다년간의 운영 노하우 전수, 다양한 메뉴 개발, 철저한 브랜드 관리 등은 누구나 약속할 수 있지만 모스버거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상생과 공감까지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스탠다드 매장과 익스프레스 매장의 출점 방식은 다르게 추진한다. 그는 “모스버거가 한국 진출 초기에는 인지도를 위해 백화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픈했다면, 이제 중심상권은 모스버거 스탠다드 매장으로 인지도를 확대 하고,

익스프레스 매장은 일명 골목상권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모스버거를 즐기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방향 전략을 통해 한국 진출 10년 이내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버거 브랜드로 자리잡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대표는 “올해 초 메뉴를 전면 개편했다. 순쇠고기 패티 사이즈를 30% 더 증량하고 번을 더 폭신하게 만들었다”며 “한국인 입맛에 맞춘 모스BBQ치즈버거, 모스클래식치즈버거, 아이올리치즈버거, 데리볼버거, 우마미와규버거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이 메뉴들은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 모스BBQ치즈버거의 경우 출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아메리칸 스타일을 바탕으로 일본 특유의 정갈함, 깔끔함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메뉴 개발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변화하는 모스버거를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모스버거는 지난 2017년 전년보다 매출이 105% 늘었고, 올해는 130%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중기중앙회-홈쇼핑, 우수 중소기업 입점지원 상담회**  
중기중앙회와 홈쇼핑은 15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MD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 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발굴, TV홈쇼핑 입점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와 홈쇼핑은 2012년부터 매년 중소기업주간에 상담회를 진행해 왔다. 중소기업들이 MD와 상담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활명수 티셔츠... 박카스 마스크... 미술포장 생리대...

## 제약사의 이색콜라보 ‘시선집중’

각사의 장수 인기제품으로 의류·잡화·음료 등 콜라보 기존 고객엔 신선함 불어넣고 새로운 소비층에겐 인지도 ↑



동화약품의 ‘활명수’와 청바지 브랜드 ‘게스’와 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 동화약품은 티셔츠, 데님 팬츠와 데님백 등 총 6종의 캡슐 컬렉션 제품을 선보였다. /동화약품

국내 전통 제약사인 동화약품과 동아제약이 협업(Collaboration·콜라보) 전략을 통해 자사 제품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있다. 두 회사는 자사의 장수 제품을 이종업계와 협업을 진행해 젊은 세대에 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품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아트 마케팅 등 신개념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활명수·박카스 콜라보로 2030 마케팅 동화약품은 장수제품 ‘활명수’를 패션업계와 협업을 통해 컬렉션 제품을 만들어 20·30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출시한 지 121년이 넘는 활명수가 중·장년층에게 높은 인지도를 지닌 만큼 10·20대의 시선을 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획했다.

동화약품과 게스코리아홀딩스의 협업은 국내최초 제약사와 패션회사 간의 신개념 콜라보다. 지난 1일 내놓은 티셔츠, 데님 팬츠와 데님백 등 총 6종 제품이 첫 컬렉션 작품이다.

두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등록상표인 동화약품의 ‘부채표’와 ‘게스’ 고유의 상징인 삼각 로고를 융합해 청년층에는 신선함을 주고, 더불어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화약품 활명수는 이미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프렌즈, 쇼미더머니 기법판 등을 출시하며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왔다. 특히 힙합 서바이벌 방송 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에 출연한

래퍼 보이비·더블케이가 동화약품과 함께 만든 ‘리본(REBORN)’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13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동아제약도 이종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신선함 더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국민 자양강장제 ‘박카스’는 지난달 디자인 전문 쇼핑몰 천삼백케이(1300K)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박카스 굿즈’ 한정판을 선보였다.

박카스 굿즈는 총 3종으로, 카페를 컨셉으로 만들어진 블록형태의 키덜트 상품인 ‘박카스 블록’, 타우린이 함유된 박카스 타우린 ‘박카스 마스크팩’, 피로한 눈을 편안하고 촉촉하게 해주는 ‘박카스 우밍 아이 마스크’로 구성돼 1300k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상징성 높은 ‘콜라보’ 눈길

제품의 상징성을 높이는 협업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동화약품의 에너지드링크 지파크(GPARK)는 국내 대표 건전지 브랜드 백셀과 협업을 통해 힘을 보충한다는 에너지 드링크의 상징성을 강화했다.

‘백셀 에너지드링크 지파크’는 건전지 디자인을 모티브로 패키지를 리뉴얼해 에너지의 속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에너지 컨셉을 재미있게 풀어낸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출시 초반부터 젊은 층의 관심과 반응이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만나기 위해 마라톤 대회 후원, 뮤직 페스티벌, 대학교 축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생리대 제품 포장지에 예술작을 담은 ‘아트 마케팅’을 선보였다. 동아제약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체내형 생리대 제품 ‘템포’의 포장지에 클로드 모네의 작품 ‘수련’을 그려 넣어 심미적인 가치는 더욱 살리고 생리대 제품을 이용하는 여성고객들이 보다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도록 했다.

동아제약 권희재 홍보담당자는 “생리대 템포의 패키지 변경은 원조 인상과 화가 모네의 특유의 포근함과 청아함을 통해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대 제품에 친숙함을 갖도록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회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 Advertorial Corner

## 나른한 봄 피로 안녕... 종근당 고품량 활성비타민 ‘벤포벨’

하루 한 알로 필요 영양분 섭취

최근 고품량 활성비타민이 육체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관련 시장은 매년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제품을 고를 때 자신에게 필요한 성분인지, 함량이 충분한지, 활성형 비타민이 맞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종근당의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우리 몸

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고품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벤포벨의 주성분인 벤포티아민은 육체피로와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개선에 효과적인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비타민B1제제보다 생체이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포티아민 외에도 비타민 B2, B6, B12를 각각 100mg분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피로회복과, 구내염, 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간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UDCA성분 30mg과 항산화 기능,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혈중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인 이노시톨,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비타민C, D, E 등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성분이 최적의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제품은 1일 1회 복용으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량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며, 정제의 크기를 줄여 목넘김에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 /박인용 기자



## 셀트리온헬스케어 독일서 ‘허쥬마’ 처방 개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방암·위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처방이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허쥬마’는 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가운데 최초로 유럽 빅5 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런칭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와 ‘트룩시마’(성분명 리투시맙)의 성공적인 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다.

독일의 트라스투주맙 시장 규모는 약 3500억원으로 빅5국가(영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를 포함해 유럽 전

체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유통 파트너사인 먼디파마(Mundipharma)로 ‘허쥬마’를 공급한지 1개월 만에 실제 처방이 이뤄지면서 경쟁 제품보다 먼저 독일 트라스투주맙 시장을 선점한 것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2월 ‘허쥬마’의 유럽의약품청(EMA) 판매 승인 이후 3개월 만에 영국을 필두로 독일에서도 런칭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연내 유럽 전역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 ‘협력업체와 상생’ 맥 아는 맥도날드

국내 식자재 업체와 파트너십 확대  
‘세 다리 의자 철학’ 동반성장 힘써

맥도날드는 국내 우수 식자재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현재 30여개의 국내외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식자재 등을 공급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제품과 양상추를 공급하는 ‘매일유업’, 쇠고기 패티와 양상추, 양파 등 신선식품을 공급하는 ‘신세계푸드’ 등 국내 우수 식품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맥도날드는 치킨 제품은 닭고기 전문 업체인 ‘마니커F&G’, 달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7년 연속 품질 우수상을 수상한 ‘가능바이오’ 등 국내 우수 협력사들로부터 공급 받고 있다.

맥도날드는 1988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상생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자회사로 두지 않고 독립된 협력사를 통해 공급 받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협력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용



지난 8일 맥도날드는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엄격한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를 다짐했다. /맥도날드

확대, 품질 향상을 이끌며 한국의 식품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국내 식자재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나아가 생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의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는 농장에서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엄격한 글로벌 및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가는 맥도날드 고유의 우수농장관리프로그램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에 따라 토양의 영양이 풍부하지, 물은 깨끗한지, 주변의 오염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관리된다. 또한 모든 식자재 공급업체는 맥도날드의 품질관리시스템인 ‘SQMS(Supplier Quality Management System)’를 준수하며, SQMS는 국내 식품 관련 법규

와 HACCP, ISO 9001, FSSC 20000 등 국내외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인증 시스템을 포함한다. 유통과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센터 역시 맥도날드만의 글로벌 유통품질관리프로세스인 ‘DQMP(Distribution Quality Management Process)’를 통해 선입선출, 온도 및 이물 관리,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사장은 “맥도날드는 하나의 의자를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처럼 공급업체, 가맹점주, 본사가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세 다리 의자 철학’을 바탕으로 상생에 힘써왔다”며 “국내 우수 협력업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지역경제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맥도날드는 지난 8일 푸드 세이프티 타운홀 미팅에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를 위한 맥도날드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CJ오쇼핑 대통령 구두 ‘아지오’ 첫 선

CJ오쇼핑이 문재인 대통령 구두로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 ‘아지오(AGIO)’를 TV홈쇼핑 최초로 선보인다.

CJ오쇼핑은 오는 17일 자사의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인 ‘1사1명품’ 무료방송을 통해 아지오의 구두를 론칭한다고 15일 밝혔다. 같은날 CJmall의 1사1명품 기획전을 통해서도 아지오의 수제화를 판매할 예정이다.

아지오는 이탈리아로 ‘편하다’라는 의미다. 소가죽을 사용해 수작업을 거쳐 만든 정통 신사화로 뛰어난 착화감을 자랑한다. 검정과 갈색 중 선택이 가능하고 가격은 한 켤레에 20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CJ오쇼핑의 1사1명품은 2012년 시작돼 6년째를 맞는 CJ오쇼핑의 대표 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상품은 보유하고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며 자생력을 길러주는 사업이다. CJ오쇼핑이 처음 시작한 1사1명품 사업 모델은 지난 2013년 중기청(현 중기벤처기업부)과 홈쇼핑 4개사 협약을 거쳐 현재는 업계 상생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G9 ‘프리미엄’ 전략 通했다... 3년간 거래액 4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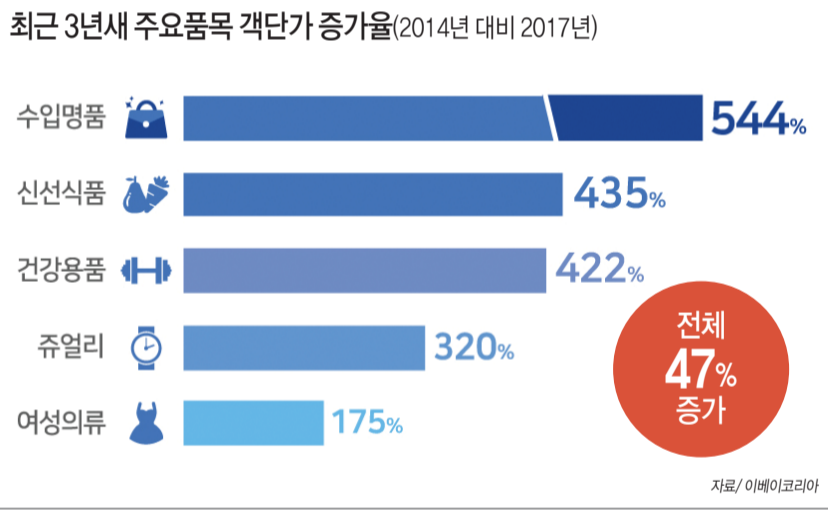
프리미엄 콘텐츠로 차별화 전략  
최근 3년 고객구매 객단가 47% ↑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큐레이션 종합쇼핑몰 G9(지구)가 명품, 해외지구, 톱브랜드 등 ‘프리미엄 상품’을 강조하며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9의 연도별 고객구매 객단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약 4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5월 현재 평균 객단가는 지난해 보다 10% 이상 상승, 2014년 대비 55%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명품의 경우 구매 객단가가 3년 새 6배(544%) 이상 급증하면서 평균 객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건강용품(422%)과 신선식품(435%)도 같은 기간 객단가가 5배 이상 높아졌다. 이외에도 ▲주얼리(시계) 320% ▲여성의류 175% ▲계절가전 167% ▲생활용품 16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구매 객단가가 크게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간 거래규모도 매년 두 자릿 성장세를 보이며 3년 만에 4배(318%) 가량 덩치가 커졌다. 올 들어서



도 1분기(1~3월)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20% 이상 거래규모가 늘었다. 객단가 상승이 수익성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외형 확대에도 기여한 셈이다.

G9 측은 객단가 상승의 이유로 VIP 고객을 겨냥한 프리미엄 콘텐츠 도입을 꼽는다. 지난해 잇달아 도입한 ‘명품지구’와 ‘신선지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명품지구는 믿을 수 있는 명품만 엄선해 추천하는 VIP 서비스다. 고객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구매 시 받은 상품 풀 패키지와 영수증을 함께 동봉하고 명품 전문 수선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1년 무상 AS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선지구는 최고 품질의 농축수산물을 담당자들이 까다롭게 엄선해 선보이는 서비스다.

G9는 지난해 말부터 ‘해외지구 특화’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쇼핑사이트에서 활동하는 현지 판매자를 직접 영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16% 수준이던 전체에서의 해외지구 매출 비중이 최근 30%까지 크게 확대됐다. 올해는 상반기 내에 지난해 2배 수준의 해외지구 상품 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해외지구 쇼핑의 간소화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G9는 해외지구 상품 가격에 관부가세와 해외배송비를 전부 포함시켜 가격을 명료화했다.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해외지구 제품도 직관적인 쇼핑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매년 입력해야 했던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 절차도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바꿨다. 프리미엄 이미지에 맞춰 모바일 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도 전면 리뉴얼했다.

김정남 G9 총괄 본부장은 “최저가, 가성비를 내세우며 저가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환경에서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프리미엄’을 택한 것이 주효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이면서도 과감한 시도를 통해 보다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쇼핑몰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 GS25 ‘편저트’ 제품 인기 폭발 디저트 매출 234% 올라

편저트(편의점+디저트)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가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16년 74.8%, 2017년 8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4.6%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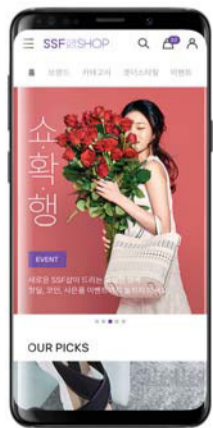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즉석 원두커피 수요가 늘면서 커피와 함께 즐길 디저트를 찾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GS25는 분석하고 있다.

카페25는 고품질 커피를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난 해만 6400만잔이 판매됐다. 이에 맞춰 GS25가 전문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다양한 컨셉의 디저트를 출시하면서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다고 GS측은 설명했다.

GS25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상품은 유어스타일라미수와 유어스타일모찌이다. 지난해 8월 출시 후 현재까지 약 8개월 동안 각 400만개 이상이 판매됐다. /김유진 기자

## 삼성물산 패션 SSF샵 ‘쇼확행’ 사이트 개편

대폭 재정보... 접근성·편의성 높여  
사용자 PC 및 모바일 최적화 작업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통합 온라인몰 SSF샵은 매년 온라인 구매 고객의 증가에 따라 패션성을 높이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구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대폭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SSF샵은 ‘쇼핑의 확실한 행복’을 슬로건으로 온라인·모바일 쇼핑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혜택은 물론 행복한 경험을 선사해 언제 어디서나 쇼핑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이트 개

편을 단행했다.

SSF샵은 ‘힐링’에 대한 소비자 니즈에 따라 누구에게나 방해 받지 않으면서 본인만의 쇼핑을 할 수 있고 선택이 어려움 겪는 고객에게는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패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최신 트렌드와 실용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하는 등 차별화

된 공간 비즈니스에 집중했다.

특히 패션회사에 걸맞는 비주얼로 디자인을 개편했고 사용자 PC 및 모바일에 최적화시켜 전체 화면이 자동 조절돼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또 SSF샵의 다양한 브랜드 특성에 맞춘 콘텐츠 구성과 비주얼 차별화로 브랜드마다의 아이덴티티를 전달케 했다.

SSF샵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맞춰 AI 기반의 디지털 고객 서비스도 한층 강화했다. 이미지만으로 상품의 컬러, 소재, 스타일, 실루엣 등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상품의 유사상품을 찾아 줄 뿐 아니라 해당 상품과 연관도가 높은 아이템들을 선별해 고객에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유진 기자

## 애경 주방세제 트리오, 중국서 쾌속 성장

1분기 전년동기비 수출 67% 성장

우리나라 최초의 주방세제 트리오가 최근 중국 주방세제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주방세제 중국 수출이 2018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67% 성장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1%의 성장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위생관념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수입 주방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코트라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중국 액상세제 시장동향에 따르면 기능성, 안

전성이 높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 주방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성분 차별화로 인지도 및 호감도가 높아져 트리오 주방세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1분기 애경산업 내부집계기준의 중국 주방세제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곡물을 성분으로 한 ‘트리오 곡물세거지’가 전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트ριο는 중국 이외 몽골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트리오 수출규모가 70% 이상 성장했다. /김유진 기자



# 삼성 패밀리허브, 인간공학디자인 ‘그랑프리’

## 소비자 중심 설계·음성인식 높이 평가

삼성전자는 15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신개념 가전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대한인간공학회가 주관하는 ‘2018년 인간공학디자인상’ 최고상인 ‘그랑프리’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랑프리는 부문에 상관없이 전 제품을 통틀어 인간공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에 주어지는 타이틀이다.

인간공학디자인상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사용 용이성 ▲효율성 ▲기능성 ▲감성품질 ▲안정성 ▲시장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선정된다.

대한인간공학회는 삼성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인간공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인체 치수를 감안해 접근성 높은 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UX 디자이너들이 인간공학 디자인상 그랑프리를 수상한 ‘T9000 패밀리허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을 높이 평가했다. 스크린 위치를 적정 높이로 배치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쉬운 접근 하

면’ 기능과 주요 버튼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드 내비게이션’ 기능, 시각장애인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화면 색상 반전’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화자 구분(Voice ID)’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일정·메모·뉴스·날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감성품질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 빅스비와 내부 카메라를 적용해 음성만으로 식재료 간편 등록, 유통기한 자동 입력, 식재료 구매 등이 가능한 푸드 매니지먼트 기능은 제품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 2018년형 ‘패밀리허브’ 냉장고는 ‘CES 2018’에서 가전 부문 ‘최고 혁신상’과 스마트홈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 LG유플러스

# 농아인 야구 캠페인 50만명 돌파

LG유플러스는 농아인 야구 활성화 위한 ‘U+프로야구’ 애플리케이션(앱) 기부 캠페인 참가자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U+프로야구를 통해 고객이 앱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후원금 100원이 적립돼 100만명 참여 달성 시 적립된 1억원을 대한농아인야구협회에 기부하는 고객 참여형 캠페인을 열고 있다. 기부금은 2019 세계농아인야구대회 운영비와 국가대표팀 훈련비, 전국 15개 농아인 야구팀 장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U+프로야구 앱의 농아인 야구 기부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야구할 때 가장 행복한 농아인 야구선수 이윤희 씨와 동료들의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제작된 ‘보이나요? 당신의 열정을 향한 세상의 응원이’ 영상은 지난 1일 공개 이후 현재 조회수 1000만에 육박, 단기간에 50만명이라는 기부 캠페인 참가자를 모았다. /김나인 기자 silkni@



‘보이나요? 당신의 열정을 향한 세상의 응원이’ 영상 중 농아인 야구선수 이윤희 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허구연 해설위원이 재능기부로 선수들을 위한 특별 코칭을 제공하는 모습. /LG유플러스

# LG복지재단 착한 교통사고로 2차 사고 막은 시민에 ‘LG의인상’

LG복지재단은 지난 12일 교통사고 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후 운전자를 구한 한영탁 씨(사진)에게 ‘LG의인상’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씨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 나들목 인근에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비틀거리며 계속 전진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고 차량 옆을 지나던 한 씨는 운전자가 조수석 쪽으로 기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



를 밖으로 무사히 구해냈다.

고, 대형사고의 위험을 우려해 지체 없이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 차량을 막아 멈춰 세웠다.

이어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잠겨있던 창문을 망치로 깨 후 시동을 끄고 운전자를 밖으로 무사히 구해냈다. /정은미 기자

LG복지재단 관계자는 “충돌로 인해 자칫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가 오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막아선 한 씨의 용감한 선행을 우리 사회가 함께 격려하자는 의미에서 수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G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국가와 사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보답한다”는 구분무 LG 회장의 뜻을 반영해 ‘LG의인상’을 제정한 뒤 지금까지 총 72명을 선정했다. /정은미 기자

# 보령제약 충남대 약학대에 장학금 전달

보령제약은 15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충남대 약학대에 약 1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지역 우수인력의 육성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산학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충남대학교 약학대학의 우수한 학생 2명을 학술교류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장학생에게 인적성 검사를 통한 진로상담과 멘토링, 조직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보령제약그룹 김승호 회장,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 최태홍 사장,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정해광 학장, 김삼겸 부학장, 윤휘열 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5월 16일 (음 4월 2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명청하게 지내는 하루가 된다. 60년생 의욕이 없어 만사가 귀찮다. 72년생 상대의 보 달리는 요구있으니 곤란을 당한다. 84년생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언젠가는 이뤄질 수 있다.
- 말**  54년생 어려울수록 아랫사람을 많이 격려해 줘라. 66년생 재성운이 상승하고 있으니 금전 문제가 해결되는 하루다. 78년생 매사에 공격적인 생각이 관건이다. 90년생 말 많은 일에 이득 될 것이 없다.
- 소**  49년생 건강을 위하여 오늘 하루는 다 내려놓고 휴식하라. 61년생 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이 불화가 있다. 73년생 생각이 많아지니 머리가 복잡해진다. 85년생 동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겠다.
- 양**  55년생 과거에 심어놓은 친절에 덕을 볼 때가 되었다. 67년생 뽕성부를 나무는 떡 잎부터 알아 본다 고 하였으니 인원선발을 잘 하라. 79년생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91년생 외화내빈한 상대를 믿지 마라.
- 호랑이**  50년생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다. 62년생 조금 하지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74년생 힘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86년생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 원숭이**  56년생 성공을 위해 자신을 알라. 68년생 무심코 상대를 모욕하지 마라. 80년생 소신껏 자신의 의지대로 하라. 92년생 역풍에 연이 높이 오르는 하루.
- 토끼**  51년생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63년생 과거 덕을 배운결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75년생 쌓였던 피로를 잊는 즐거운 일이었다. 87년생 첫눈에 반하게 되는 상대를 만난다.
- 닭**  57년생 속빈강정처럼 허세를 부리면 금방 탈이 난다. 69년생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것을 명심 하고 일을 추진 하라. 81년생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여라. 93년생 약속은 실천이 따른다.
- 돼지**  52년생 도움을 준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된다. 64년생 지인과 즐거운 술자리가 마련된다. 76년생 윗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88년생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 개**  58년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손실이 없다. 70년생 서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82년생 계획대로 단계 밟아가며 일하라. 94년생 어려움에 대해 극복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다.
- 뱀**  53년생 오늘은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포기 하지 마라. 77년생 열심히 일하는 밑에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89년생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했다.
- 돼지**  59년생 모든일은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손실이 없다. 71년생 남의 언쟁에 참견하지 않으면 구설수가 없다. 83년생 공연회 책임져야 할 일을 만들게 된다. 95년생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도록 하라.

## 김상회의四季

### 풍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여러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이나 땅은 세모나 뾰족한 형태는 피해야 하며, 따라서 적당한 비율의 장방형이나 직사각형이어야 한다든가 측간이나 부엌은 서북향이어야 한다던가하는 생각들 말이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 양택풍수가 된다. 땅자의 묘를 쓸 때는 음택풍수라 한다. 좌청룡 우백호의 자리를 명당으로 치는 것도 그 좋은 예이다. 풍수의 일반이론은 어떤 신묘한 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상식적인 요건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보더라도 풍수무전미(風水無全美)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명당은 없다는데 동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흠결 없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천하의 명당자리를 찾게 된다면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이 탄생할 터라던가, 자자손손 흥성할거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대면 알법한 어는 재계의 수장은 평소 풍수지리설을 신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을 정할 때 자신의 흥성을 이룬다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의 기운이 모여 있다는 터를 골라 주택을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수지리설에 있어 금계포란형의 터는 자손의 번창은 물론 부와 귀를 함께 이루는 곳이다. 말 그대로 부귀겸전(富貴兼全)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회장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송사로 망신살이 뵈던 적이 많았었다. 그럴 때마다 일부 호사자들은 그 재계 인사의 일부러 고른 집터가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탓이라 했다. 금계포란형이라 할지라도 그 기운이 응집된 와혈(窩穴)을 잘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탓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그릇된 견해다. 터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지점 자체만 좋을 수가 없다. 땅이라는 것은 단지 토의 기운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운이 펼쳐지는 영역은 생각보다 반경이 좁을 수도 있다. 칼로 두부모 자르듯 여기만 좋고 저기는 안 좋은 것이 아니다. 상주사과가 유명한 것은 상주라 불리는 지역의 대체적인 토질과 수량이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금계포란형이라 불리는 지역은 훌륭한 곳이지만 넓은 지역을 포괄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땅의 전체적 기운이 좋으니 그 가운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경거망동하지 않았을 때 좋은 기운과 운이 차질 없이 발현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3		6			8	5	
		1			7			
8		5	7				3	
1		3	9				6	
		3		9				
7	9		3			6	2	
		8	4					
		2	6					

	1		3	4				2
		3			2	5		
6	7						4	8
				5			6	
9			3		1			5
	5			8				
	6						3	7
		8	7			1		
4			9					8

**스도쿠 정답**

6	8	9	2	3	4	5	1	7
2	5	1	7	6	8	9	3	4
3	9	8	5	1	7	6	2	4
8	2	6	2	1	9	5	7	3
9	7	5	6	8	2	1	3	4
1	3	2	4	7	5	6	9	8
6	2	1	5	7	1	8	9	3
5	8	7	1	9	6	2	4	3
1	4	9	8	2	3	5	7	6

문제 제공= **보너스**



# 20대의 금융 집짓기



오상열

행복한 금융집짓기

이들의 경제적인 관심은 미혼은 결혼 자금이고, 기혼은 주택구입자금마련입니다. 물론 남자들의 경우 자동차구입을 1순위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녀공히 결혼자금과 주택구입자금입니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성향이 가장 높습니다. 모바일에 강한 세대가기 때문에 금융 정보가 많아서 다른 세대에 비해 재테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마도 2030대에는 A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득도 불규칙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보다 부정적인 전망도 많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고 용기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면 계속 바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야 합니다. 사람도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영화도 보고, 바람도 씹니다. 계획을 가지고 노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위대한 일을 한가지씩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주택 마련, 노후준비 등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알뜰하게 저축을 하고 싶지만 주위에서 추천하는 금융상품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채테크 서적과 강연 등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해 보지만 저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나올 때마다 세제혜택이며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들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가입하면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잘했나 싶어 갈등을 하다 기존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결국에는 손해를 보니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몇 가

지 금융상품이 있는데 가장 필수적인 상품이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고,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저축과 세제혜택의 효과가 동시에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여럿인 사람도 많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고려한 합리적인 실비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같은 대출상환에 돌입합니다. 노후준비로 세액공제연금을 가입합니다. 만약 대출이 없다면 목적지금을 하는데 보통 이 시기에는 본인의 결혼 자금을 준비하게 되고, 기간은 3-5년, 금액은 5천만원정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젊은 가정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보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집짓기를 미리 미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원태금융연구소 대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청소년 금융진로 캠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블루마운틴컨트리 클럽에서 '2018미래에셋 청소년 금융진로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전교생 30명 미만인 3개 중학교 학생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체험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을 쉽게 익히고 본인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대우, 희망체인지리더 1기 발대식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임직원 주도의 혁신적 사회공헌' 희망체인지리더 1기 발대식을 14일 진행했으며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임직원으로부터 나온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70명의 희망체인지리더를 위촉했다. /미래에셋대우

## 화재보험협 '창립 45주년' 기념식

### 지대섭 이사장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대섭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화재보험협회는 지대섭이사장 취임 이후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량 확보를 위해 업무영역을 붕괴, 환경오염, 풍수해까지 확대했다. 또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점검 시스템 도입과 민간기준인 한국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을 확대하는 등 기술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지대섭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시아를 외부로 넓혀 고객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경쟁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기술적인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 대처하자”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등 지식자산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 스승의 은혜는 땅 위에 있다



기저 수집

이범중 (정책사회부)

스승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교육도 서비스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교사들은 쏟아지는 카카오톡 문에 시달려야 한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잔업에 허우적대다 보면 일 년이 금방 지나간다. 교사는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입시와 지침에 말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 방식에 관여하는 학부모들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작성 지침도 자주 달라져, 수정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정 부분에 적으라던 '-' 표시는 '~' 표기로 지침이 바뀐다. 한컴오피

스에서 따옴표를 적으면 규정위반이지만, 엑셀에서 썼다면 문제없는 식이다.

선생님의 헌신을 알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어떤 스승은 법정에서 쫓겨났을까 확인해야 했다. 지난 3일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 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울산시 교육청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중 1억4000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영철 부장판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양형 이유를 읽는 동안, 김 전 교육감의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김 전 교육감의 고개는 땅에 꺼진 듯 보이지 않았다.

징역 7년과 5년. 남편과 아내는 스승의 날을 보름 앞두고 젖은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봤다. 그의 가족이었을까. 고통의 여인은 의자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한때

하늘에 있던 스승의 은혜가 권세로 이름을 바꿔 단 결과였다.

내가 기억하는 5월은 선생님이 경의를 받는 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제자의 안목으로 골랐을 리 없는 책 한 권을 받아 들고, 그 사이에 꽃힌 봉투 하나를 손에 쥐셨다.

걱정만 호기심 반으로 펼친 봉투 안에는, 어김없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부모님의 인사를 읽던 선생님의 미소. 이날 선고와 죄명이 유독 슬픈 이유였다.

스승의 은혜는 대지에서 피어난다. 지난 겨울 찾은 고등학교 교사의 집에선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제자들이) 말은 잘 듣느냐'는 물음에 "애들 다 착해"라며 웃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권위나 이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joker@metroseoul.co.kr

## 인사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변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 고용서비스 UX TFT 팀장 김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남북협력센터장 남상열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전윤중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고용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장 장순웅 △대전지방국토관리청관리과장 서경숙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장 이재명
- ◆한국관광공사 △FIT유치지원팀장 박인식△마

나라지사장 조준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리본부장경재경실장전무 문석주

## 부음

- ▲정인웅 씨 별세, 정재승(진주조 이사) 재형(조선비즈 국제부장) 다연(주부) 씨 부친상, 양희천(빛울림한의원 원장) 씨 장인상 = 15일 오전 1시,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8시. 061-242-7000
- ▲김광한씨 별세, 김재동(스타뉴스 부국장 겸 선임기자)씨 부친상 = 15일,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43-298-9200
- ▲송맹인씨 별세, 김병순씨 남편상, 송경훈(제주항공 홍보팀장)·경준(청신상사 이사)씨 부친상, 김지형(백록초교 교사)씨 시부상 = 14일 오후 11시 50분,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선영. 064-730-3710
- ▲조중현 씨 별세, 조택모(탑스카우트 대표) 택양택일(LG전자 CTO부문 컨버전스센터장) 택홍씨 부친상, 조은지(YTN 기자) 씨 조부상 = 15일 오전,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58-594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왼쪽)와 타계무라 노부유키 한국도요타 사장.

## 한국도요타자동차

### 어린이 안전·환경교육

한국도요타자동차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교실'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교실'은 한국도요타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도요타 에코&세이프티 아카데미'에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노하우를 더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규모를 키워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양성준 기자 ysw@



바른전자-취경공고, 바른스쿨 발대식

종합반도체 전문기업 바른전자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취경공업고에서 바른스쿨 운영에 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전자 사회공헌부서 임직원과 취경공고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전략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바른스쿨 운영을 계기로 장기적인 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바른스쿨' 발대식 및 취경공고 교직원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른전자



가구단체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쌀 3000kg 기부

가구 관련 단체들이 가구인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쌀 3000kg을 기부했다. 가구단체가 사랑나눔재단에 쌀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6년부터 매년 5월 열리는 가구인의 날 행사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여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가구인 자신 골프대회'에서 한국주택가구조합 이기덕 이사장, 한국곡식가구연합 노재근 회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대한가구산업연합 김계원 회장, 한국가구산업협회 박재식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구단체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1721-9851, 9826
독자센터	021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206
	2002년5월28일 제39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51호



# 문과생도 의대 갈수 있다? 이대·고신대·순천향·관동 'OK'

한의대 12곳 중 10곳 인문계 선발  
수시모집 수능최저 기준이 높아  
수능 성적이 좋다면 정시가 유리

올해 대입에서 한의대 12곳 중 10곳은 인문계열 학생을 선발한다. 일부 의대와 치대의 경우 계열별 교차지원을 허용하거나 인문계열 학생을 별도로 뽑는다.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다수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 수능 대비가 필요하다.

15일 진학사가 2019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전형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고신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인문계열 학생을 뽑고, 정시모집에서는 가톨릭관동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3곳이 문과생 출신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다. 치대의 경우 원광대가 수시·정시에서 인문계 학생을 별도 선발한다.

◆ **한의대 12곳 중 10곳 문과생 선발**  
한의대의 경우 수시모집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한의대 중 가천대와 상지대를 제외한 10개 한의대가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허용해 인문계열 학생들의 도전이 가능하다. 경희대의 경우 수시모집 학생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각각 13명과 8명의 인문계 출신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우석대, 동신대, 세명대, 동의대 등 4개 대학 한의대가 인문계열 출신의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

한의대는 학과 특성상 다른 의학계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모집 비율이 높다. 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많아 해당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많다. 전형유형별로 보면, 7개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90명을 선발하는데, 모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대구한의대, 대

전대, 동국대경주는 면접고사를 치른다. 학생부종합전형은 7개 대학에서 74명을 뽑는다. 이 중 경희대와 대전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이 서류평가와 면접만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경희대가 유일하다. 논술 70%에 학생부 30%를 반영해 8명을 뽑는다. 경희대는 국어 수화나형, 영어, 사회탐구(1과목) 중 3개 영역 등급 합 4, 한국사 5등급 이내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아 문과생이도 지원 가능한 이들 학과 입시 경쟁률은 상

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자연계열만 뽑는 경희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67.63대 1이었던 반면, 인문계열을 뽑는 전형은 217.38대 1로 자연계열 모집보다 3배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 **이화여대 의대 등 인문계열 교차지원 허용**

올해 수시모집에서 인문계 출신 교차 지원을 허용하는 고신대와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이론상 수능최저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의대 관련 학업역량이나 전공적합성을 보여주기 까다로워 합격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보통 수학 가형을 포함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만, 두 대학은 수학 나형에 응시한 인문계 학생 지원도 가능하다.

순천향대 의대의 경우 학생부교과 일반전형으로 21명, 지역인재(충남·충북·대전·세종) 전형으로 21명을 선발하는데, 면접 없이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고,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요구한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나형과 사탐을 자신이 받은 등급에서 0.5등급을 더해서 계산하므로 실제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의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의학계열 지원을 염두에 둔 인문계 학생 중 학생부 성적보다 상대적으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수능으로 뽑는 정시 지원이 유리할 수 있다. 가톨릭관동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가 올해 정시가 군에서 각각 3명과 6명을 인문계 학생으로 별도 선발한다. 정시대군에서는 순천향대 의대가 수학 나형을 선택한 인문계열 학생 39명을 뽑지만,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원광대 치대는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문계열 학생 2명을 별도로 뽑는다. 1단계 서류 평가로 4배수 선발 후 2단계 면접을 치르는데, 수능최저 3개 영역 등급 합 5이내가 필요하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넓지 않은 문이긴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도 의학계열 지원 기회가 열려있다”며 “다만 수시모집에서 높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합격의 관건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2학기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대학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구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는게 좋다. 특히 1차 신청시엔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6월 19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학점 평균 B(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C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가구소득 1~3구간 학생은 기준치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에 따라 이미 1회 적용받은 경우라면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소득구간 체계는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청년창업 활성화 팔 걷은 동국대

창업지원단 우수아이템 시상  
개인카페 마케팅 플랫폼 등

소상공인들의 개인카페 마케팅 지원을 위해 페이스북과 연동한 '지도기반 웹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한 결과 월 매출 500만 원을 올린 대학생이 있어 화제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지난 14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동국창업리그 시상식'을 갖고 9개 팀을 선정, 총 상금 1000만 원을 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동국대 창업지원단이 대학생들의 창업 관련 우수 아이템 발굴과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수상팀 중 대상에는 300만 원, 최우수상 15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등 상금과 동국대 총장 명의 상장이 수여됐다.

대상은 '소상공인 개인카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플랫폼'을 발표한 블랑크커피 대표를 맡고 있는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박용중 씨가 받았다. 블랑크커피는 페이스북 페이지 '카페갈래?'를 통해 팔로워 15만 명을 확보하고 페이스북 게시물과 연동한 '지도기반 웹 서비스'를 개발해 한 달 평균 5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을 두루



동국대 창업지원단이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동국창업리그 수상자들이 지난 14일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인정받았다. 박 씨는 “체계적인 교내 창업 지원과 교수님들의 멘토링 덕분에 창업 아이템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수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글쓰기와 동시에 간편한 직선 굵기가 가능한 볼펜 '제트라이드'를 선보인 라이노바 박용광 대표가 수상했고, 학생 부문에서는 동국대 화공생명공학과 동문혁 씨가 온라인 향수 시장 서비스 '세모향'으로 수상했다. 우수상은 블록형 원목 컷타워 'BLOCAT'를 개발한 이랜드월드 박준희 대표와 '약속 시 위치 공유 서비스'를 발표한 동국대 멀티미디어공학과 박승현 씨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일반부 장려상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머신러닝 기반 사용자 맞춤형 진료과 추천 시스템을 선보인 JU(제이유)이정의 대표와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패션 큐레이션 플랫폼을 제출한 ㈜틸투윈 강상우 대표가 받았고, 학생 부문에서는 소셜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MCN BM모델을 구축한 아주대 국어국문학과 정다빈씨와 휴양지 펜션 렌탈 서비스 '14day'를 출품한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이신일 씨가 수상했다.

동국대 창업지원단 이용규 단장은 “앞으로도 동국대는 청년 창업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학교법인 광운학원 조선영 이사장 취임



에서 조직이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KPMG 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10월부터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로서 선임대 상임이사로 재직해왔다.

조 이사장은 “부지런하고, 이기어 쓰며, 찾아서 하자”라는 광운의 창립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교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 한국외대

#### 19일 모의논술 시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김인철)는 19일 서울캠퍼스에서 모의논술 시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각각 442명, 104명을 논술전형으로 뽑는다. 올해 시험

시간이 기존 120분에서 100분으로 20분 단축됐고, 문항 수도 기존 4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어 수험생 입시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논술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 단편적 결과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이를 지지하는 타당한 근거를 밝히는 과정 중심의 서술이 요구되는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한용수 기자

## 스승의 날, 가장 많이 찾는 은사님은?

대학생 2명 중 1명은 스승의 날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따로 인사를 드리거나 찾아 뵙는다는 은사님은 고교 교사가 가장 많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2.2%가 스승의 날에 따로 인사 드리거나 찾아뵙는 선생님이 있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들이 찾는 선생님(복수응답)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57.3%)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때 선생님(24.5%), 초등학교 때 선생님(19.2%), 대학교 때 교수님(12.6%) 순이었다.

대학생 중 87.5%는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인생 스승이 가장 필요한 때로는 '취업, 진로 등 장애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을 때'(29.4%)가 가장 많

았다. 이밖에 '심각한 고민에 대해 조언이 필요할 때',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등이 있었다.

대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스승으로는 '나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승'(28.9%), '현명한 판단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스승'(28.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묵묵히 나를 응원해 주고 지켜봐 주는 스승',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오판하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스승', '나를 잘 알고 이해하는 소울메이트 같은 스승' 등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coway

맑은 공기가 뉴스가 되는 시대  
 봄바람보다 황사바람을 더 많이 맞는 시대  
 마스크를 써도 아무도 아프냐고 묻지 않는 시대  
 당신, 이대로 괜찮은가요?

# 시대의 고민에 코웨이가 청정으로 답하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코웨이 의류청정기

코디를 비롯한 1만 6천여 명의 코웨이 공기주치의와 상담하세요 1588-5200

\*코디/코웨이인원수는 2018년 2월 기준



Re:BLUETION  
 깨끗함의 무한책임



# 문제적 악동 히어로 vs 스타워즈 새로운 콤비

## 썸영화 VS 영화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가 천만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히어로물의 열기는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더 막강해진 유머와 액션, 스케일로 업그레이드돼 돌아온 '데드풀2'(감독 데이빗 레이치)와 화려한 전투액션과 첨단 특수효과를 자랑하는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감독 론 하워드)가 연달아 개봉한다.

### ◆ '데드풀2' 개성 만점·재미 보장!

오는 16일 국내에서 전세계 최초 개봉하는 영화 '데드풀2'는 액션은 기본,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로 중무장한 마블 역사상 가장 매력터지는 히어로 데드풀(라이언 레놀즈)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조슈 브롤린)을 만나 원치 않는 팀 '엑스포스'를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라이언 레놀즈가 데드풀 역으로 다시 돌아오고 '아톰틱 블론드'를 통해 스타 일리시한 액션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데이빗 레이치가 메가폰을 잡았다. 데드풀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케이블 역은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타노스로 잘 알려진 조슈 브롤린이 맡았다. 데드풀과 케이블을 대적하는 유일한 여성 히어로 도미노 역에는 재지 비츠가 캐스팅됐다. 아울러 모레나 바카린, 브리아나 힐데브란트 등 전편의 반가운 출연진들이 다시 합류해 기대를 모은다.

'데드풀2' 개봉에 앞서 해외 프리미어



와 국내 언론사시회를 접한 국내의 주요 언론과 평단은 전편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볼거리와 유머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앞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라이언 레놀즈는 "데드풀은 다른 슈퍼 히어로들에게는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관객은 '어벤져스'와는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영화는 캐릭터들이 관객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랑받을 거라고 자신한다"며 "세련된 유머감각과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뽐뽐뽐 데드풀의 매력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드풀2'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스'에 대한 관객의 궁금증도 상당하다. '엑스포스'에는 전편에서 활약한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를 비롯해



### 데드풀2

거침없는 입담·근본없는 유머감각 새롭게 등장하는 팀 '엑스포스' 관심

케이블과 도미노, 비밀에 부쳐진 멤버까지 이색 케미를 선보일 전망이다.

### ◆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 칸 영화제서 쏟아지는 관심

2018 칸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는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문제적 매력 가득한 '팀 솔로'로 총 집합해 액션 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끝냈다. 해당 작품은 최고의 파일럿을 꿈꾸던 주인공 한 솔로가 예상치 못한 팀에 합류, 상상을 초월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 블록버스터다.

이성보단 액션 본능이 앞서는 열정 충만한 '한 솔로'와 한 솔로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만능 재주꾼 '츄바카',



###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

2018 칸 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꼽혀 화려한 전투액션·흥행 신기록 귀추

한 솔로의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수수께끼의 동료 '키라', 이들을 위협한 만한 임무로 이끄는 문제적 멘토 '베키', 소문난 밀수꾼 '랜도' 등이 팀 솔로를 결성한다.

'팀 솔로'의 상상 초월하는 팀 구성과 탄탄한 스토리는 영화팬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뷰티풀 마인드' '다빈치 코드' 시리즈의 거장 론 하워드가 메가폰을 잡아 견고한 연출력은 물론 대중적인 재미까지 선사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모노레일 스텐트 액션과 세상에서 가장 빠른 함선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벌이는 화려한 전투 액션, 대규모 스케일의 첨단 특수효과를 선보이고, 업그레이드된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관객 층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는 제

71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유력 언론매체들의 집중 보도 대상이었다.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언론사 더 타임스는 "2018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소개했으며 BBC NEWS, LA타임스 등에서도 올해 주목해야 할 작품으로 앞다투어 보도했다.

미국의 연예매체 데드라인은 '한 솔로:스타워즈 스토리'가 북미의 기념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총 1억 7000만 달러(한화 1824억원)의 오프닝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역대 메모리얼데이 최고 오프닝 영화인 '캐리비안의해적:세상의끝에서'의 1억 3980만 달러를 뛰어넘는 기록으로 역대급 흥행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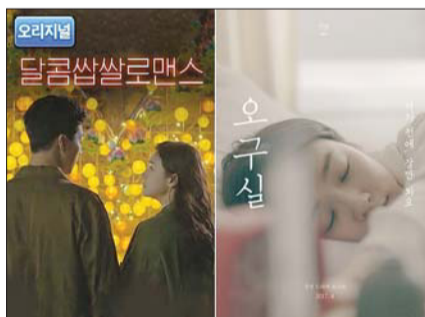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이십세기福克斯코리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시청률 1%보다 100만뷰... 요즘 드라마는 모바일 대세

## 일상의 이야기가 젊은층 공감 불러 마케팅 수단으로 '웹드라마' 트렌드

"틀어날 뉘도 3% 이상은 짝는다"는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무너졌다. 최근 종영한 MBC의 '위대한 유혹자'의 경우가 그렇다. 인기 배우 우도환과 박수영을 주축으로 젊은 배우들을 내세웠지만, 시청률은 1%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요즘 인기 있다는 웹드라마는 시청률과는 상관없이 100만뷰를 넘어 수천만뷰, 역대 뷰까지 찍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상의 '바이럴' 화제성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대세라고 할 수 있다.

### ◆ 젊은층 파고든 일상 속 웹드



웹드라마 '달콤쌈살로맨스', '오구실'. /JM컬처

웹드라마 중 가장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작품은 30대 직장녀의 일상을 담은 '오구실'이다. 2015년 시작한 '오구실'은 지난해 시즌3 종영까지, 누적 조회수 1500만건을 기록했다. 10~30대의 연애 스토리를 다룬 '연애 플레이리스트(연플리)' '전지적

짜사랑 시점(전짜시)' 등도 각각 2000만 뷰, 1000만뷰를 넘어선 흥행작이다.

이들 작품은 모두 틱스타급 아이돌이나 유명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대박'을 쳤다. 무명의 신인 배우들이 담아낸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젊은 층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탄탄한 팬층을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4일부터 올레TV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달콤쌈살로맨스'도 공개 일주일만에 1만뷰를 넘어 서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달콤쌈살로맨스'는 신인배우 김슬미, 최재이가 제주도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나 달콤쌈살처럼 한 썸을 타는 모습을 그린다.

### ◆ 안방극장 역공략... 마케팅 수단으로도

### 1순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웹드라마를 스트리밍 하는 젊은층이 급속히 늘어나자, 거대 시장이었던 방송사 드라마판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온라인에서 검증된 웹드라마를 방송사 플랫폼에 트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정일우 진세연 주연의 웹드라마 '고품격 짜사랑'은 지난 4월과 5월 종합편성채널 MBN을 통해 방송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이 작품은 이미 2015년 11월에 중국과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개돼 무려 3억 뷰를 찍은 한류 웹드라마로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히트작이다. 보통 100만뷰 달성을 웹드라마의 성공 기준으로 보는데 3억 뷰면 무려 300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높은 시청률에 단가 높은 광고가 붙는 것처럼 요즘은 될 성 부른 웹드라마에 제작자 지원을 하거나 PPL을 투입시키거나, 광고를 대체할 브랜드 콘텐츠로 만드는 '스마트' 마케팅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달콤쌈살 로맨스'의 제작사 JM컬처 박윤호 대표는 "웹드라마는 모바일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 좋은 내용으로 입소문이 나면 '공유' '좋아요' 기능을 타고 큰 파급력을 발휘한다. 또한 생방송에 가까운 쪽대본 때문에 억지스럽게 들어간 지상파 PPL에 비해 더욱 자연스럽게 치밀하게 PPL이 녹아들어갈 수 있어 광고주나 시청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다. '달콤쌈살 로맨스'의 경우에도 뷰티 편집집인 '트렌드바이미'로부터 제작자 지원을 받아 원만한 구조로 기획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6일  
음력: 4월 2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5:22 | 해질 / 19:35

연천 19/23  
동두천 20/23  
파주 19/22  
가평 18/24  
서울 20/24  
양평 19/24  
인천 19/21  
수원 20/24  
용인 20/24  
평택 20/24

백령도 13/1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골프여제 **박인비**(30)가 15일 발표한 볼레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평균 7.35점을 기록해 4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유지했다. 뒤이어 평산산(중국), 렉시 톰슨(미국), 박성현, 유소연, 아리아 주타(태국), 김인경이 세계랭킹 2위~7위를 기록했다.
- ▲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신태용**호가 최종 엔트리 23명을 사전캠프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6월 2일 확정한다. 앞서 14일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소집명단 28명을 발표한 바 있다.
- ▲ 아르헨티나축구협회가 15일(한국시간)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예비 명단 3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격수에는 메

시를 비롯해 세르히오 아구에로, 곤살로 이과인, 파울로 디발라, 마우로 이카르디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와 수비진에도 앙헬 디 마이라,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등의 경험이 풍부한 선수가 선발됐다. 월드컵에 나설 최종 23인 명단은 다음 주 확정한다.

- ▲ FA 최대어 전광인이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는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क्स 배구단은 15일 남자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2차 협상에서 전광인 선수와 5억20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 ▲ **오승환**(36·토론토)을 품에 안은 토론토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승환은 15일 기준 19경기에서 18%이닝을 던지며 1승1세이브2홀드 평균자책점 1.45를 기록 중이다.



# 예술가 경제적 지원, 시혜 아닌 문화투자로 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봉 500만원 시인의 현실

# 시인 A(34)씨는 최근 '시인 연봉은 500만원대'라는 조사 결과를 읽고 고개를 가웃했다. A씨는 "강연과 과외 등 대외활동으로 지난해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결혼을 앞둔 B(29·여)씨도 "주위에서 왜 시인과 결혼하느냐고 물어난감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또 다른 예술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일부에 속한다"며 "본업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알바'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남긴 과제로 예술의 독립성이 꺾이지만 창작 활동 지원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문화 강국을 향한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15일 한국직업정보원의 '2016 한국의 직업 정보'에 따르면, 시인의 연봉은 평균 542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 다음으로 연봉이 적은 수녀(126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시인의 경우, 작품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직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A씨처럼 '자리를 잡은' 문인은 관련 활동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지만,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예술계 독립성이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들의 생활고 역시 투자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스타

**문인들 대부분 알바로 생계 이어가 예술인 43% 지원금 정책 자체 몰라 "정책·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중요"**

대개는 비예술활동으로 생계를 잇는 것이 예술계의 전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3만1332명의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 평균은 각각 1255만원과 1552만원이었다.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36.3%와 42%로 많았다.

전업·겸업 예술인의 비율은 각각 50%였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직업 투

입 시간은 일주일 평균 14.3시간인 반면, 예술활동 외 직업 투입 시간은 두 배에 가까운 25.6시간이었다. 겸업 예술인이 예술 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낮고(51.6%) 불규칙한 소득(31.4%)이 꼽혔다.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자는 15.9%로, 이 중 1년간 단절된 응답자는 42.5%였다. 5년 이상 장기적 단절자도 1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9%만 있었다고 대답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중앙·지방자치단체가 1101만원, 공공기관이 916만원, 기업 884만원, 개인 627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43%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이 불필요

하다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8.4%와 17.6%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예술계에서는 정부의 예술 진흥 정책을 현실화하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흥경한 미술평론가는 "예술이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이라면,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예술가들에게 기회적·생산적으로 가장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강국이 되려면 '투자'라는 개념이 합당한데,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현장과의 조화와 호흡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은 예술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녀야 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의식이 남루하면 배품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 역시 과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임원을 임명해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관련법 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예외로 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범종기자 joker@metroseoul.co.kr

## 서울시 '개인파산' 등 가계부채 1.7조 면책 지원

5년 동안 4300여 명 구제

# 김모 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액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에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 씨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의 늪에 빠진 4300여명을 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터는 2013년 개소 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 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파산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였을 때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센터의 면책지원율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거쳤다.

시는 2013년 122명,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

명, 2018년 360명의 면책을 지원했다.

시가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사람들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로 집계됐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장·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 채무조정지원뿐만 아니라 재무상담,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ki1@

###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 17~20일 대학로서 거리공연

서울 종로구는 오는 17~20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소나무길에서 '2018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를 연다. 축제는 39개팀 22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가운데 본행사, 초청공연, 협력페스티벌, 부대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모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어린이체험 워크숍', 대형인형 놀이인 '봄날의 산책' 등 5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놀이기구 타는 꼬마스님들

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석가탄신일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조계사 '단기 출가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들이

/연합뉴스

서울시

#### 채용 전제 '뉴딜 일자리' 청년 인재 315명 모집

서울시가 민간기업 채용을 전제로 구직자를 모집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는 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 약 2개월간 모집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생을 연결하고,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리뷰마케팅 ▲ICT ▲방송 ▲인적자원개발 등 5개 직군 11개 분야이며, 총 31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2~3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고,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된다. 인턴 기간 중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195만원이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 이웃과 공생 '나눔이웃' 실천

서울 마포구는 주민들이 소모임을 구성해 복지 사업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2018 나눔이웃'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나눔이웃은 동별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형성해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말벗이 돼 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동주민센터는 주민 모임 결성을 돕고 활동 준비와 진행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산업] 더 똑똑해진 정수기 생활가전사 경쟁 치열 05



[유통] 맥도날드 협력업체와 상생 1



# 한강철교 밑 도롱뇽·버들치...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



지난 13일 서울 이촌한강생태공원 생태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위에서 뛰어 놀고 있다.



이촌생태공원 낚시 제한구역에서 한 시민이 6대의 낚시대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다.

## 되살아나는 서울

### 16 용산구 '이촌한강생태공원'

등대처럼 생긴 전망대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한강대교 북단 철교 밑에는 초록빛 물결이 넘실거리는 이촌한강생태공원이 있다.

서울시는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자연형 호안과 소생물 서식처를 복원하는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이촌한강생태공원의 문을 열었다.

이촌한강생태공원은 한강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약 1.3km 구간에 9만7100㎡ 규모로 만들어졌다. 공원에는 생태복원을 위한 자연형 호안, 천변 습지, 논 습지와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놀이터 등이 조성됐다.

####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우와~ 소금쟁이가 두 마리나 있네?” 지난 13일 이촌한강생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돌아다니는 소금쟁이의 가느다란 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용산구 청파동에서 온 조영균(36) 씨는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라서 습지는커녕 논조차 볼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가까운 곳에 생태공원이 생겨서 기쁘다”며 밝게 웃었다.

### 자연성 회복 사업으로 공원 조성 습지·산책로 등 시민의 공간으로

### 식물·하천 수질 관리는 미흡 낚시·자전거족 등 시민의식 필요

이촌한강생태공원 습지에는 경남 창원군에서 기증받아 심은 우포늪 습지식물 6종이 식재되어 있다.

조 씨는 “안내팻말을 보면 창포, 부들, 매자기, 송이고랭이 등 4600본의 습지 식물을 심어놨다고 나왔는데 아직도 자란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생태공원은 일반 근린공원처럼 처음부터 아름답게 완성된 식물을 뺄뺄하게 심어놓는 게 아닌 습지 식물이 살만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생태공원을 찾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 이석영(29) 씨는 “정자에 앉아 버드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며 미소 지었다.

이 씨는 “그런데 공원을 조성만 해놓고 관리하는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오면

서 봤는데, 습지는 물이다 말라 있고, 전망대 뒤쪽은 예초 작업을 안 해 낚시 풀들이 지저분하게 자라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습지는 상태에 따라 양수기로 물을 채워 넣는데 전날 비가 와서 기계를 꺼놓은 것 같다”며 “확인 후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망대 뒤편에 심은 쇠무릎은 최대 1m까지 자라는 식물”이라며 “야생 경관 조성을 위해 따로 예초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자전거가 ‘쌩쌩’... 실종된 시민의식

이촌생태공원에는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휘방꾼들이 존재했다. 도로 위의 무법자 ‘자전거족’이다.

용산구 보광동에서 온 박운성(24) 씨는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달려 부딪힐 뻔했다”면서 “심지어는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행로로 달리는 사람도 있었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한강 자전거길 제한속도인 시속 20km를 10km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생태공원 강변 쪽과 도로 쪽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각각 따로 만들어져 있

음에도 일부 자전거족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생태 복원을 위해 조성된 이촌한강공원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한강생태공원은 낚시 제한구역으로 제한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낚시를 할 수 있다.

제한사항에는 ‘낚시대 4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내 청원 경찰이 24시간 근무하며 계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위반사항을 다 잡아내기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강공원을 찾은 이윤희(64) 씨는 “강변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한강에서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나서 자리를 털고 나왔다”며 “사람들이 마시고 사용하는 물인데 수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 물을 유람선 운항 등의 이유로 호수처럼 가뭄과 물이 흐르지 않아 나는 냄새”라며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강을 옛 하천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이촌한강생태공원 논습지 조감도. /서울시